

Research Center

#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되돌아온 모멘텀 반등 (feat. G2)

■ 기업/산업분석

신세계인터넷내셔널, 통신서비스, 자동차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매일유업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포스코강판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채권분석 | 오창섭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크레딧분석 | 김기명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스몰캡전략 | 정훈석  
글로벌기업 | 정희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김시우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제분석 | 박정우

## 되돌아온 모멘텀 반등 (feat. G2)

연초 이후 둔화됐던 제조업 모멘텀이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  
 미국은 여전히 견조한 소비와 투자 회복이 핵심, 제조업 반등에 따른 생산 점증  
 중국 소프트랜딩 마무리, 아쉬운 4월 실물지표를 뒤로하고 경기 모멘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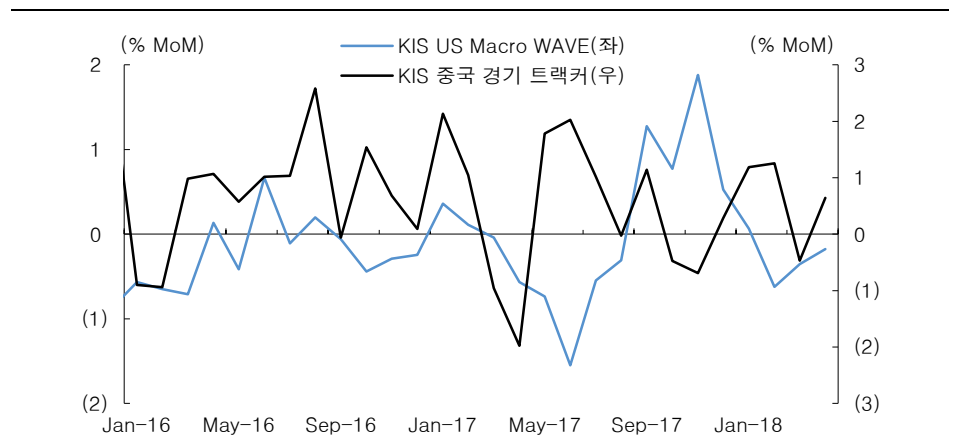
### 경기 조정 마무리 국면, 제조업 반등과 함께 경기 모멘텀 회복

1분기 글로벌 경기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물 지표 흐름이 이어지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다. 특히 1분기 정점을 찍은 재고사이클 둔화 흐름과 미국의 일시적 주택 수요 하락, 중국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입 부진이 겹치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됐다. 나아가 美-中 무역 분쟁에 따른 교역둔화 우려, 유로존 정치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 등 높은 불확실성이 혼재된 불안한 모습이 계속됐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흐름을 보인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며 글로벌 경기의 변곡점 우려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망을 반영하듯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의 Citi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연초 이후 하향 일변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PMI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2분기 지표가 확인되고 있는 5월부터 안정화 국면에 진입해 6월에는 본격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펀더멘털이 일시적인 계절적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 호황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종하는 KIS US Macro WAVE와 KIS 중국 경기 트랙커에서도 반등 시그널이 지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KIS US Macro WAVE와 KIS 중국 경기 트랙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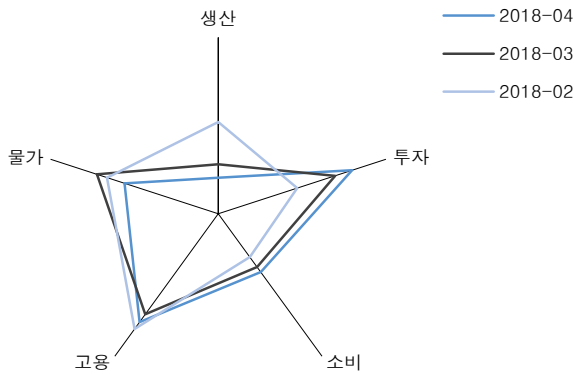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5월 미국 Macro WAVE: 소비와 투자의 콜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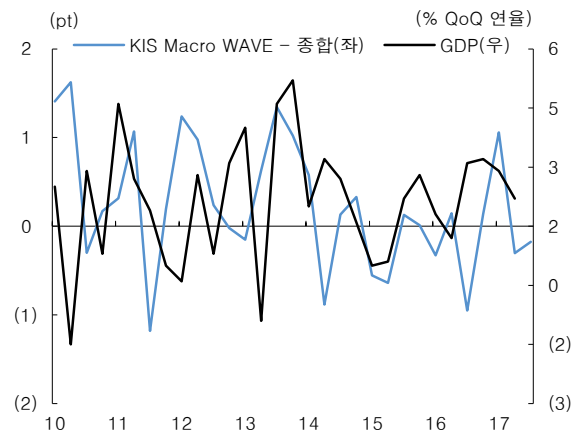
KIS US Macro WAVE를 통해 진단해본 미국 경기는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실물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점증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과 함께 견조한 흐름의 고용시장이 6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헤드라인 지표의 부진속에 확인된 세부 실물지표의 반등 시그널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분기 부진했던 소비의 반등과 함께 투자 부분 역시 정책 지원에 힘입어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쉬움을 남긴 생산 부분에서도 2분기 수요회복에 맞춰 재고 축적을 위한 활발한 생산활동이 기대된다. 따라서 제조업 경기의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안정화 국면 진입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KIS US Macro WAVE - 종합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3] US Macro Wave 종합과 미국 GDP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해설도우미1> KIS US Marco WAVE란?

- 미국 경제의 흐름을 고용/생산/소비/투자/물가의 5개 영역으로 나눈 후 각각에 해당하는 5개의 경제지표를 선정
- 총 25개의 경제지표를 4개의 기준을 통해 스코어링을 한 후 이들 점수를 합산해 도출
- 스코어링은 컨센서스, 전월, 3개월 평균, 12개월 평균 4가지 기준 대비 개선되었으면 +1을 부과하고 감소했으면 -1을 부과
- 이렇게 4개의 영역에서 스코어링을 한 후 이들을 합산하면 5개 카테고리에 대한 점수가 도출되고 이를 다시 합산하면 종합 스코어링 산출
- 종합 스코어링 = 고용 + 생산 + 소비 + 투자 + 물가의 합, 이들 점수를 매달 기록해서 방사형 차트로 구성한 것이 US Macro Wave

<표 1> KIS US Macro WAVE 4월지표 세부 항목 및 전월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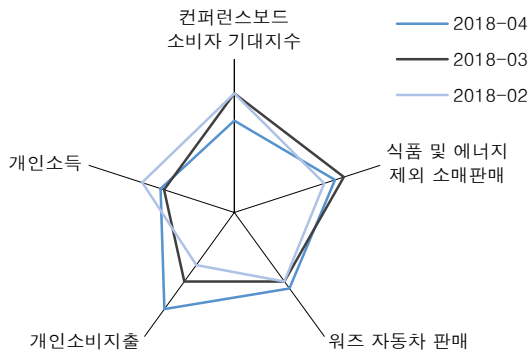
항목	4월(전월비 변화)	세부항목	4월(전월비 변화)
생산	-1.48(-)	ISM 제조업지수	-0.27(-)
		ISM 비제조업지수	-0.63(-)
		시카고 구매자협회 지수	-0.63(+)
		NAHB 주택공급자 심리지수	-0.87(-)
		산업생산	0.92(+)
투자	1.48(+)	비국방 비항공 자본재 주문	0.33(+)
		설비가동률	0.47(+)
		신규주택판매	0.40(=)
		기존주택판매	0.33(=)
		주택착공건수	-0.05(-)
소비	-0.45(+)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0.20(-)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소매판매	0.07(-)
		워즈 자동차 판매	-0.17(+)
		개인소비지출	0.33(+)
		개인소득	-0.48(+)
고용	1.30(+)	민간부문 신규고용	0.03(-)
		주간 근로시간	0.43(+)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0.40(=)
		실업률	0.23(+)
		NFIB 소기업 낙관지수	0.20(-)
물가	0.30(-)	소비자물가	0.27(-)
		생산자물가	0.23(-)
		PCE물가지수	0.57(+)
		수입물가지수	-0.37(-)
		시간 당 평균 임금	-0.4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1) 실물경기(소비, 생산, 투자), 견조한 투자와 반등하는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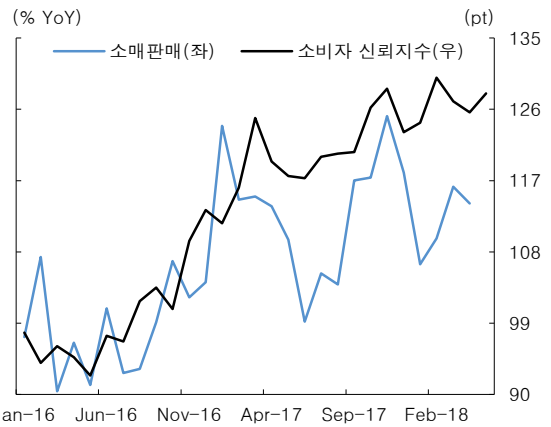
1분기 미국 소비지표의 부진을 뒤로하고 KIS US Macro WAVE 소비항목에서 유의미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소매판매가 준내구재 중심으로 전월비 0.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워즈 자동차 판매도 시장 예상을 상회한 1,707만 대를 기록했다. 개인소비지출도 전월비 0.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4월 부진했던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도 5월들어 재차 128pt까지 상승하며 민간소비 회복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4월 저축률이 2.8%를 기록하며 재차 2%대로 하락했다.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전월비 0.4%를 기록하는 등 낮은 저축률과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부분의 반등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KIS US Macro WAVE – 소비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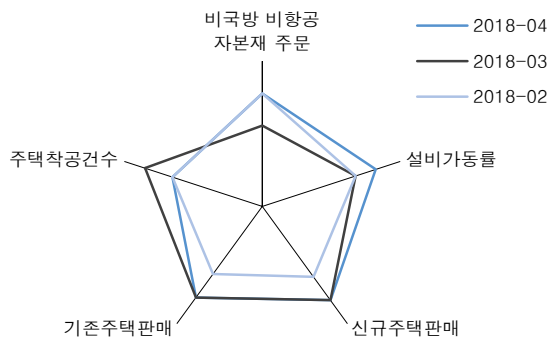
[그림 5] 소매판매와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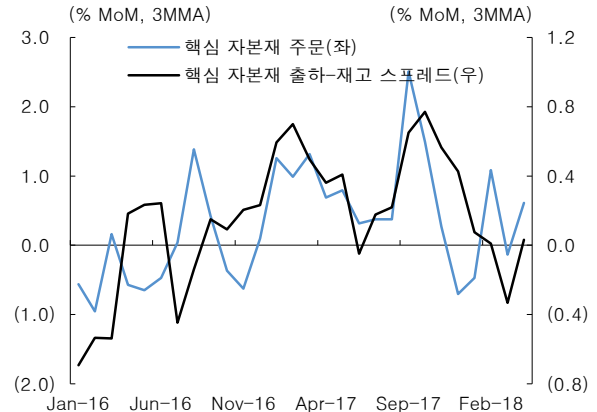
4월 다소 부진했던 주택경기 흐름에도 KIS US Macro WAVE 투자항목의 반등은 긍정적인 투자환경이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먼저 2017년 4분기 허리케인의 여파로 복구 수요가 선 반영되며 4월들어 주택판매는 기대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정책 지원과 함께 자본지출전망이 상향되며 설비투자자의 확장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설비가동률이 지난 2015년 3월 이후 처음 78%까지 상승하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부진한 주택경기 역시 5월부터 정상화되면서 전체 투자부분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KIS US Macro WAVE – 투자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7] 핵심 자본재 주문과 출하-재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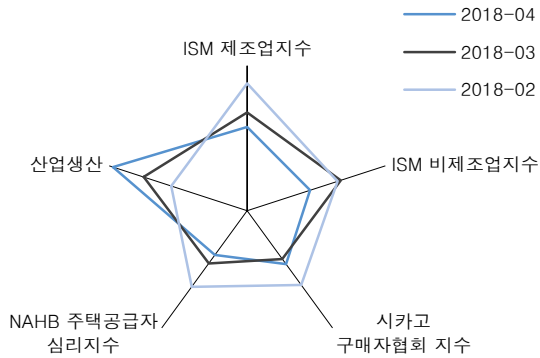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한편 4월 KIS US Macro WAVE 생산항목은 서베이 지표 중심으로 하락하며 실망스러운 수준을 기록했다. 먼저 ISM 제조업지수가 57.3pt 까지 하락하며 2017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ISM 비제조업 지수와 NAHB 주택공급자 지수 역시 전월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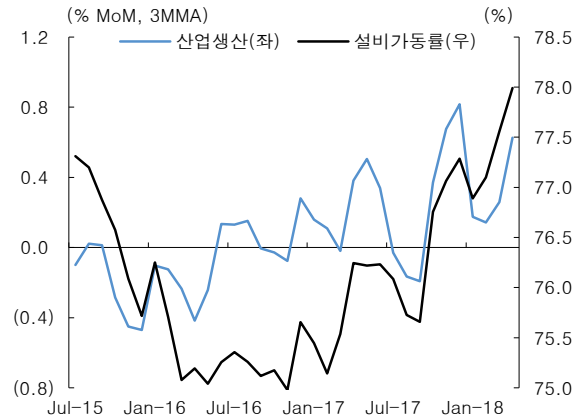
그러나 ISM 제조업지수 세부항목에서 재고 지수가 큰 폭 하락해 주문-재고 스프레드가 2018년들어 처음 반등에 성공했다. 1분기 이어진 재고 사이클 하락 국면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실물지표인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은 4월에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견조한 소비와 함께 생산확대가 투자가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흐름이 기대된다.

[그림 8] KIS US Macro WAVE - 생산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과 점증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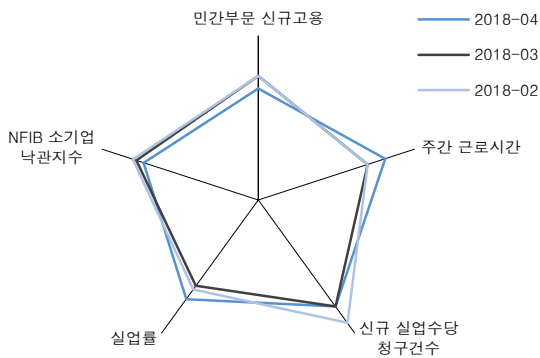
먼저, 고용시장에서는 신규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고용률은 60.3%로 양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9%까지 하회한 가운데 고용 수급과 임금상승률도 견조한 모습이다.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비 큰 폭 하락했으나, 세부항목 중 고용관련 지표인 임금 인상계획과 고용계획은 전월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54세 핵심인구의 신규고용이 2개월 연속 감소한 부분은 우려할만한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고용환경에 대한 평가는 우려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상황으로 안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고용시장의 호조와 달리 물가는 4월 지표에서 뚜렷한 상승압력을 확인하기에 다소 제한적이었다. 본격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으며 무역분쟁에 따른 수입품 관세 인상 효과도 5월 이후에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들이 5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타겟 인플레이션인 2% 수준에 무난하게 안착할 전망이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판단의 핵심지표인 고용과 물가는 4월 데이터에서 이미 금리인상을 지지할 만큼 충분한 목표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5월 FOMC에서 대칭적 물가상승 압력을 용인하는 문구가 삽입되며 하반기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입품 관세부과와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며 임금상승 압력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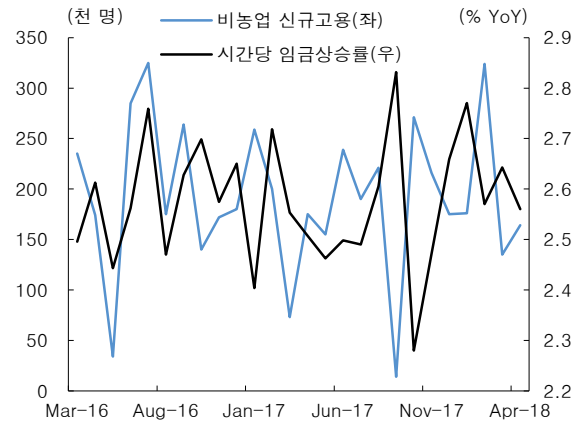
이미 3월 FOMC에서 일정부분 소폭의 점도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1명의 위원만 전망치를 상향할 경우 올해 금리인상 횟수는 4회로 확대된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물가 목표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6월 FOMC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과 함께 긴축강도 강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KIS US Macro WAVE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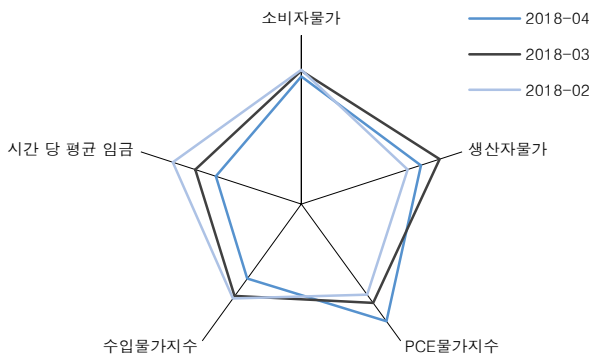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비농업 신규고용과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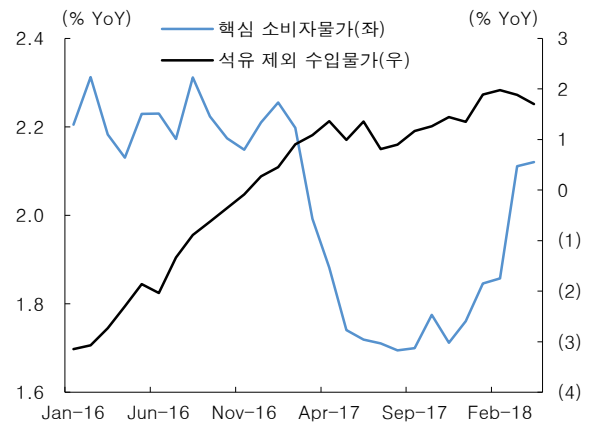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KIS US Macro WAVE - 물가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핵심 소비자물가와 석유 제외 수입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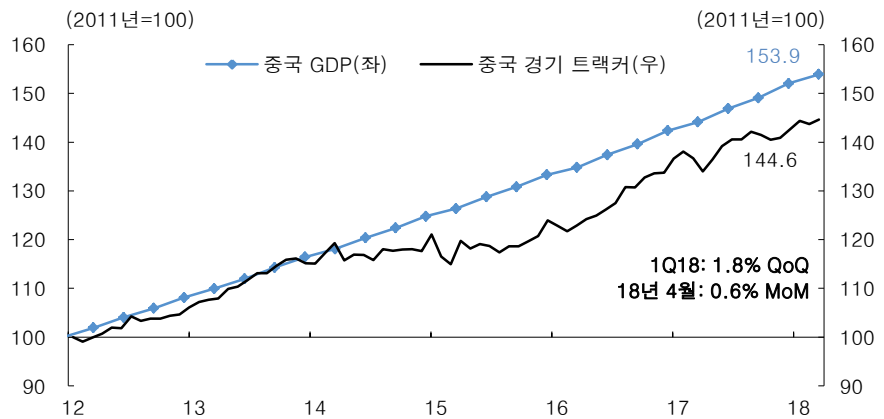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5월 중국 경기 트랙커: 경기 반등은 현재 진행 중

중국은 1분기 부진했던 제조업 PMI 지표 반등이 확인되는 가운데 실물단에서도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7.0%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 모멘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다. 다만, 가계와 기업의 견조한 대출수요가 이어지며 사회융자총액이 크게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일시적인 둔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4월 중국 규모이상(영업이익이 2천만 위안 이상인 기업) 제조업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 증가하며 1~3월 대비 3.4%p 확대됐다. 4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대비 3.4% 반등하며 가격 상승효과와 출하량 확대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며 기업 부채비율의 개선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중국 경기의 소프트랜딩 흐름은 월간 중국 경기 트랙커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4월들어 중국 경기 트랙커는 전월비 0.6% 상승하며 1분기의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력사용량과 항공여행객, 승용차 판매량 등 고른 영역에서 개선세가 확인됐다. 특히 6대 핵심산업 생산량이 전월비 4.2%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첨단 제조산업 부분의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KIS 중국 경기 트랙커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해설도우미2> KIS 중국 경기 트랙커란?

- 총 12개 핵심지표의 실질 물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경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계절조정을 통해 월간 및 분기 변화를 통해 빠른 경기 판단 가능
- **종합 경기동향:** 철도 물동량(내수 경기)과 컨테이너 물동량(수출 경기) 데이터
- **가계 소비동향:** 항공여행객 수(서비스 소비)와 승용차 판매량(내구재 소비) 데이터
- **기업 활동동향:** 전력사용량(설비가동률), 상업용 차량 판매량(기업 설비투자 수요), 주요 6대 핵심산업(철강,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시멘트, 정제유)의 실질 생산량

〈표 2〉 KIS 중국 경기 트랙커

(단위: 2011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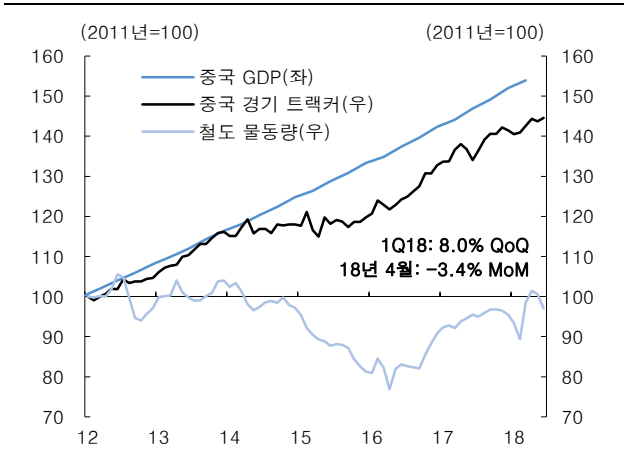
Name	연간		분기			17, 18년 월간				
	2016년	2017년	3Q17	4Q17	1Q18	17' 12월	18' 1월	2월	3월	4월
GDP	138.5	148.0	149.1	152.0	153.9					
중국 경기 트랙커	127.7	138.9	141.1	141.0	143.6	140.9	142.6	144.4	143.7	144.6
변화율	7.4%	8.5%	3.4%	(0.3%)	1.8%	0.3%	1.2%	1.3%	(0.5%)	0.6%
철도 물동량	85.1	94.6	96.7	92.8	100.2	89.4	98.5	101.5	100.5	97.1
컨테이너 물동량	130.5	142.1	144.2	144.8	147.6	145.0	146.8	148.0	148.2	148.1
항공여행객	160.9	181.8	183.3	191.4	195.1	193.3	192.9	194.1	198.4	199.9
승용차 판매량	160.5	165.0	170.9	168.8	167.2	168.2	166.5	165.2	169.9	170.5
전력사용량	125.2	134.1	137.0	136.5	142.9	137.9	139.4	149.0	140.3	141.3
상업용 차량 판매량	95.3	109.9	111.8	112.2	111.9	112.0	111.1	110.3	114.2	115.3
6대 핵심산업 생산량	136.2	145.0	143.9	140.3	140.0	140.6	142.9	142.6	134.3	140.1
철강	125.2	130.9	133.7	130.9	132.0	129.8	130.6	132.7	132.7	136.2
철광석	98.4	100.8	93.0	89.9	84.0	87.1	99.9	89.2	63.1	68.6
구리	170.1	180.9	178.4	184.8	186.9	190.5	188.8	188.9	182.9	188.8
알루미늄	181.9	209.6	211.5	190.1	195.7	195.4	193.9	196.5	196.7	199.9
시멘트	121.3	120.9	118.4	115.6	107.6	113.5	112.8	114.0	96.0	112.7
경제유	127.5	126.9	130.1	129.0	128.1	127.0	131.7	134.3	134.6	134.0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1) 종합 경기동향: 1분기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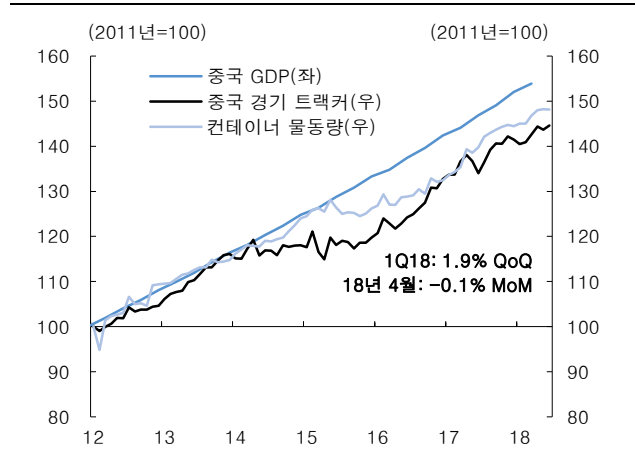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종합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철도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각각 전월비 3.4%, 0.1% 감소했다. 특히 중국 내 수요를 반영하는 철도 물동량이 전분기 가파른 증가에 따른 소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며 크게 하락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1분기와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대내외 수요 공백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술했듯이 1분기 가파른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는 판단이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며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2분기 글로벌 재고사이클 역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4월 전체 고정자산투자 지표는 부진했지만 세부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투자 부분에서 개선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그림 15] 중국 경기 트랙커와 철도 물동량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중국 경기 트랙커와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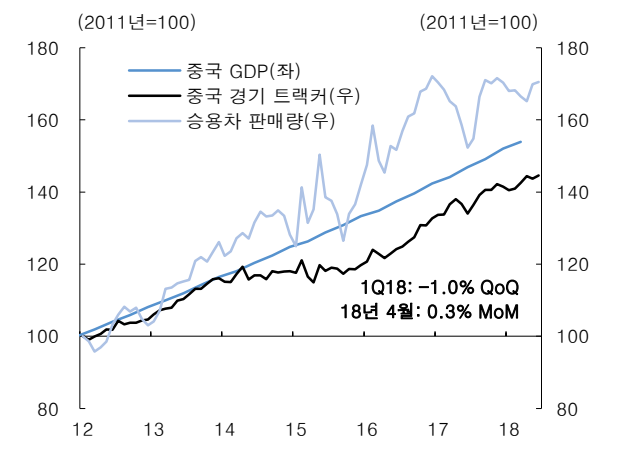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 가계 소비동향: 상품판매는 부진했으나, 서비스업 관련 소비 확대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전년대비 9.4%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초 이후 소폭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구와 가전, 인테리어 관련 품목의 판매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 역시 연초 취득세 10% 인상 영향이 반영되며 기대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승용차 판매량은 4월 들어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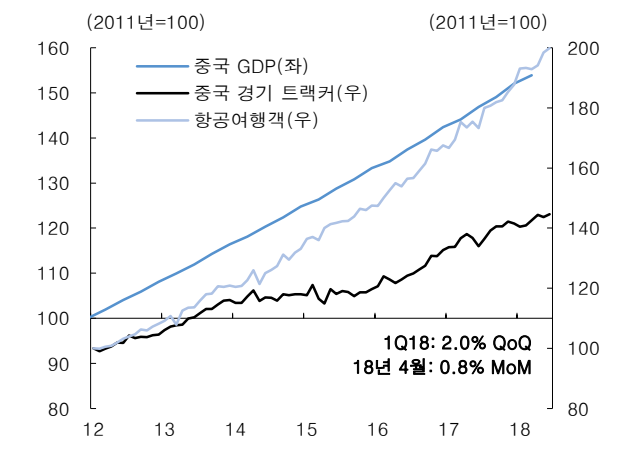
다만 중국 내 서비스관련 소비를 대표하는 항공여행객 수 추이는 전월비 0.8% 증가하며 1분기에 이어 꾸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소매판매의 통계범위가 대부분 상품판매에 국한된다는 점과 높은 서비스업 비중을 고려하면 항공여행객 수의 견조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처분 소득 확대와 인터넷 보급 확대로 소비 잠재력이 높은 3, 4선 도시 중심으로 내수 확대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 역시 1.8% 수준으로 안정적인 레인지에 위치하고 있고 위안화 환율 역시 신흥국 통화 중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인민은행의 급격한 긴축 선회 가능성 역시 낮을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소비환경이 이어지며 중국 내수소비의 상승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 중국 경기 트랙커와 승용차 판매량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중국 경기 트랙커와 항공여행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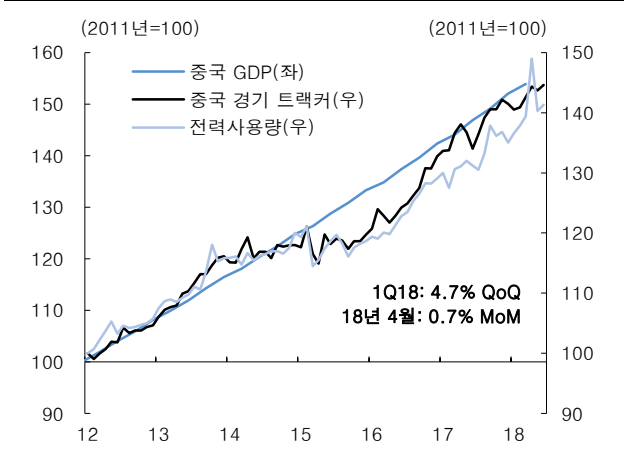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3) 기업 활동동향: 첨단 제조산업 중심의 투자 수요 유효

마지막으로 기업 산업활동 동향을 반영하는 전력사용량과 상업용 차량 판매량, 주요 6대 산업의 산업생산량은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다. 1분기 춘절 연휴와 함께 3월 양회일정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산업활동이 4월부터 시작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경기 모멘텀 역시 1분기 다소 부진한 흐름에서 4월부터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까지 회복하는 등 중국 내 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5월 제조업 PMI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51.9pt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경기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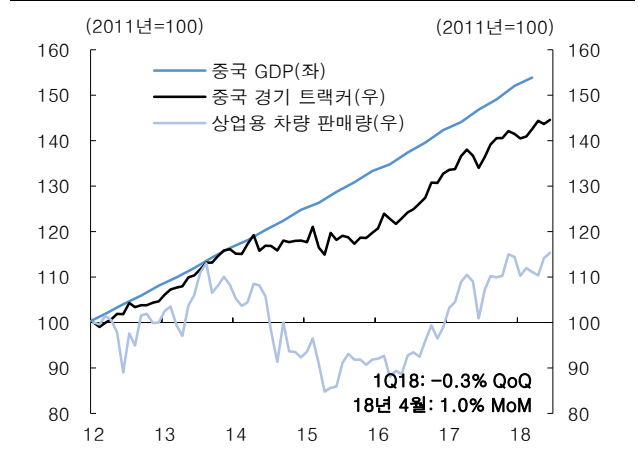
특히 규모이상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 악화 흐름이 4월 크게 반등하며 제조업 모멘텀 반등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 제조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유효하기 때문에 생산 부분의 반등은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반등 흐름을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9] 중국 경기 트랙커와 전력사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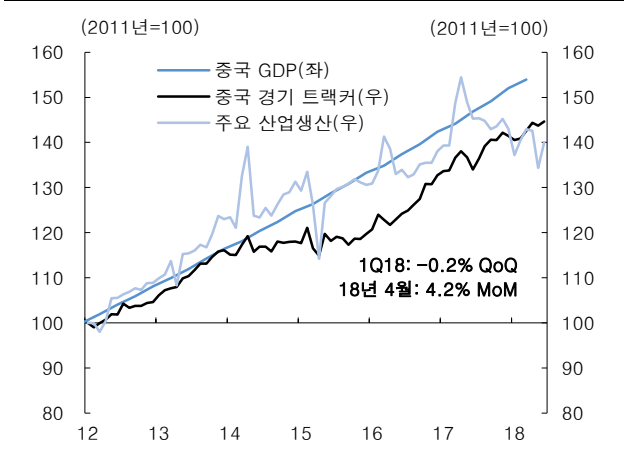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중국 경기 트랙커와 상업용 차량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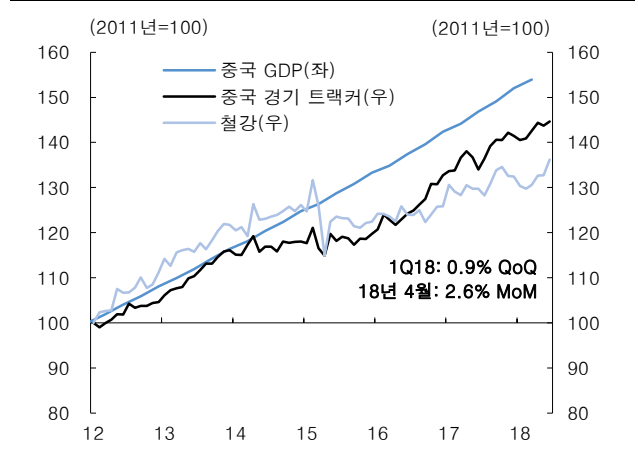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중국 경기 트랙커와 6대 핵심산업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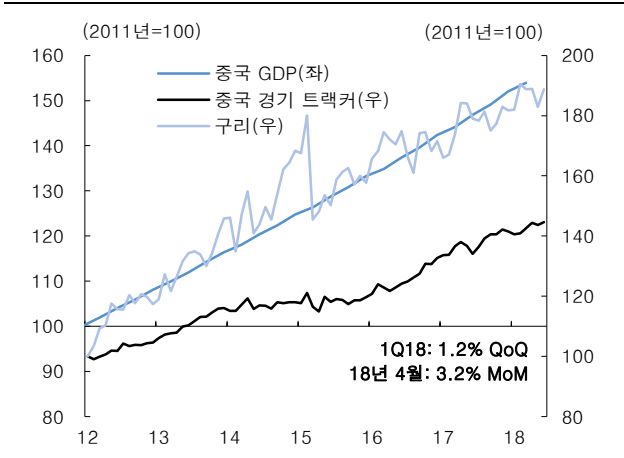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중국 경기 트랙커와 철강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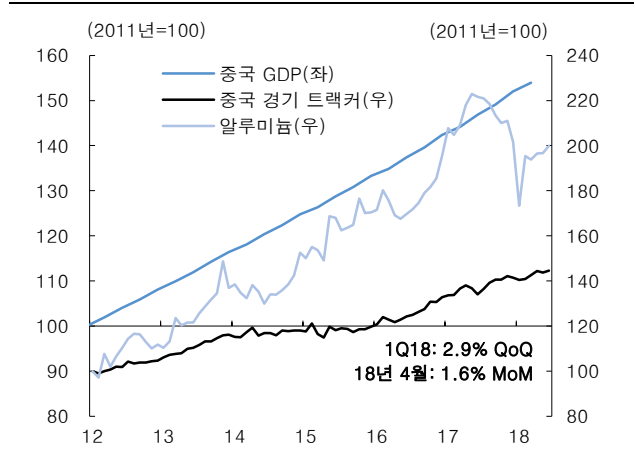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중국 경기 트랙커와 구리 생산량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중국 경기 트랙커와 알루미늄 생산량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표 3> 주간 주요 경제지표

날짜	이벤트	당사 예상치	시장 예상치	이전치
6/5	한국 5월 외환보유고 (USD bn)	n/a	n/a	398.4
	미국 5월 ISM 비제조업지수 (pt)	57.9	57.5	56.8
	중국 5월 수출입 (YoY)	7.3%/13.1%	n/a	12.7%/21.5%
6/7	유럽 1분기 GDP 확정치 (QoQ)	n/s	0.4%	0.4%
6/8	일본 1분기 GDP 확정치 (QoQ)	n/a	n/a	(0.2%)
6/8~9	G7 정상회담			
6/9	중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9%	n/a	1.8%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신세계인터내셔널(031430)

## 2%가 20%를 만날 때

### 실적 추정 대폭 상향, 목표주가 21만원으로 상향

신세계 백화점의 수입 명품 사업으로 시작한 동사가 수년간 역점을 둔 것은 1) 사업 다각화와, 2) 수익성 높은 자체 브랜드 사업이다. 고수익 화장품 사업의 가파른 실적 개선과 패션 부문에서의 수익성 개선을 반영, 2018년,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 대비 40%, 28% 상향한다. 2018년, 2019년 예상 실적 평균에 목표 PER 23배(SOTP)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기존 15.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목표주가는 현 주가에서 25% 상승 여력이 있다. 금년 투자 회수기에 본격 진입, 연결 영업이익은 6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 2%대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20%에 가까운 화장품 사업이 가세하면서 2018년 5%로 상승할 전망이다. 2019~2020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23%로 예상된다.

### 화장품 고공 성장: 영업이익 작년 57억원에서 금년 360억원

화장품 매출액은 작년 630억원에서 금년 2,05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에서 금년 17%로 상승, 화장품 영업이익은 360억원, 2019년 47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사 영업이익 기여도는 57%, 59%에 달할 것이다. ‘비디비치’ 브랜드 매출액이 2017년 연간 229억원, 월 20억~30억원에서 금년 3월 130억원을 기록, 4~5월에도 상기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300억원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비디비치’ 외 수입 화장품 매출액은 1분기 약 170억원을 기록, 연간 750억원 매출이 예상된다. 2분기부터 화장품 매출액은 분기별로 550억원 수준, 영업이익은 1분기 70억원에서 2분기부터 90억~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 2분기도 컨센서스 크게 상회할 것

2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2,890억원, 영업이익은 244% 급증한 152억원(영업이익률 5.3%, +3.4%p YoY)으로 컨센서스 95억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화장품 사업 영업이익률이 18%에 영업이익 규모가 약 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JAJU 브랜드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이 성수기로 약 48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폴푸아레 영업 손실 약 3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패션 부문 수익성 개선도 가세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6A	1,021	27	17	2,432	(17.8)	61	27.2	13.4	1.0	3.7	0.9
2017A	1,103	25	24	3,371	38.6	63	22.0	14.0	1.1	5.0	0.8
2018F	1,267	63	54	7,558	124.2	100	22.4	15.3	2.2	10.4	0.4
2019F	1,351	81	71	9,954	31.7	117	17.0	12.9	2.0	12.3	0.4
2020F	1,467	96	86	12,025	20.8	132	14.1	11.2	1.7	13.2	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 매수(유지)

목표주가: 21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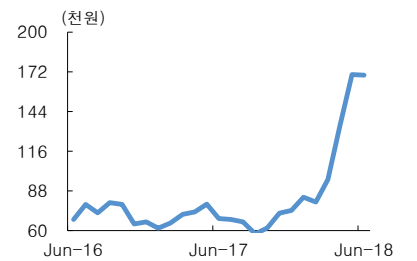
### Stock Data

KOSPI(6/1)	2,439
주가(6/1)	169,500
시가총액(십억원)	1,210
발행주식수(백만)	7
52주 최고/최저가(원)	170,000/56,1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3,939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32.0/5.1
주요주주(%)	신세계 외 5인 68.0
	국민연금 10.0

###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6.5	129.1	117.9
KOSPI 대비(%p)	29.5	130.5	113.8

### 주가추이



자료: WISEfn

### 나은채

ec.na@truefriend.com

### 신세계 화장품 유통 채널 빠른 증가, 화장품 브랜드 사업 성장 예상

신세계 그룹 화장품 유통 채널의 빠른 확장과 중장기적으로 신세계 그룹의 화장품 사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비디비치’와 동사의 수입 브랜드들은 고가 제품으로 포지셔닝, 백화점과 면세점이 주요 유통 채널이다. 최근 매출 급증은 면세점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디비치’ 매출액은 면세점 매출 비중이 70%로 신세계 명동 면세점과 롯데 소공점이 동사의 면세점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수입 브랜드들도 면세점 매출 비중이 50%에 달한다.

신세계 그룹의 면세점 사업은 2016년 명동점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부산, 금년 인천 공항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영업 면적이 명동점과 유사한 코엑스 면세점이 오픈한다. 신세계 면세점 사업은 작년 1조원대에서 코엑스점까지 오픈 시 2019년에는 3조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신세계인터 화장품 사업의 판매 경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면세점 외 신세계 백화점의 화장품 전문 매장인 ‘시코르’ 확장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올리브영’, ‘Watsons’와 차별화되는 고급화된 H&B 스토어로 2017년 강남점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매장이 있다. 대부분 대형 점포로 중저가 브랜드뿐 아니라 백화점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다. 고가로 포지셔닝하는 동사 브랜드들의 유통 확대에 긍정적이다. 시코르는 금년 20개 매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디비치’ 브랜드의 라인 확장과 신규 브랜드 사업이 예상된다. ‘비디비치’는 현재 ‘스킨 일루미네이션 파운데이션’과 ‘하이드라 마스크’에 집중된 제품 라인업 다각화와 중국 현지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하반기 신세계 그룹의 신규 화장품 브랜드 출시가 예상된다. 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로 보도가 되었으며 판매와 유통은 신세계 그룹이, 제조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담당할 것이다. ‘폴푸아레’ 브랜드로도 화장품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동사의 화장품 사업에서 축적된 사업 노하우를 감안 시 동사가 신규 브랜드 사업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 패션 부문도 호조

패션 사업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화장품을 제외한 사업부 영업이익은 작년 200억원에서 금년 270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분기 해외 패션, 국내 패션, 톱보이 등 패션 부문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었다. 해외 패션은 ‘바나나 리퍼블릭’ 등 적자 브랜드 축소, 국내 패션 부문도 구조 조정과 여성복 호조, ‘톱보이’도 남성복 등 라인 확장 및 매장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가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 우량 자회사에도 주목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지분법 및 수수료수입은 2017년 129억원에서 2018년 16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렛 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패딩 몽클레르, 화장품 제조사인 신세계인터코스이다. 몽클레르가 호조이고 신세계인터코스는 금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되나 신세계 그룹향 물량 증가 및 글로벌사 오더 확대에 힘입어 2019년부터 지분법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표 1> 실적 추정 상황

(단위: 십억원, %)

	변경후		변경전		변경률	
	2018F	2019F	2018F	2019F	2018F	2019F
매출액	1,267	1,351	1,244	1,341	1.9	0.7
영업이익	63	81	45	63	40.5	27.8
세전이익	72	95	56	77	28.9	23.4
지배주주순이익	54	71	43	58	25.5	22.5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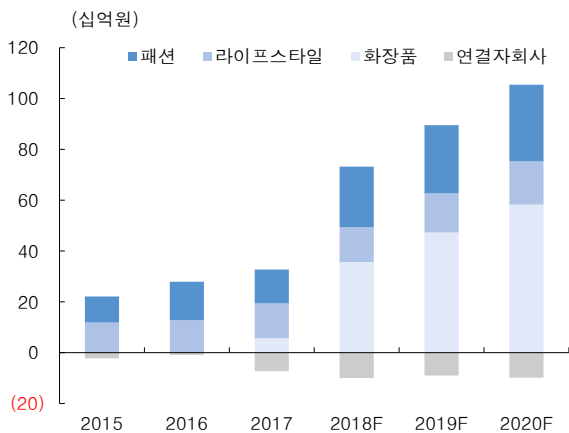
<표 2> SI 목표주가 21만원 제시

(단위: 십억원, 배, 천주, 원)

부문별 가치	2018F	2019F	Note
코스메틱 가치 (A)	884	1,170	화장품 평균 PER 적용
NOPLAT	27	35	
목표 배수	33	33	
라이프스타일 (B)	154	173	생활용품 평균
NOPLAT	10	12	
목표 배수	20	20	
패션 (C)	241	272	내수 패션 목표 PER
NOPLAT	18	20	해외, 국내 패션, 연결 자회사 톰보이 포함
목표 배수	14	14	
지분법 및 수수료 (D)	221	292	신세계사이먼, 몽클레르, 인터코스, 푸아레
NOPLAT	12	16	
목표 배수	18	18	
금융 비용 가치 (E)	198	198	금융 비용에 내재 PER 적용
기업 가치 (A)+(B)+(C)+(D)-(E)	1,302	1,708	
주식 수	7,140		1,000 주
적정 주당 가치	182,400	239,266	
<b>적정 주가 (2018-2019년 평균)</b>		<b>210,83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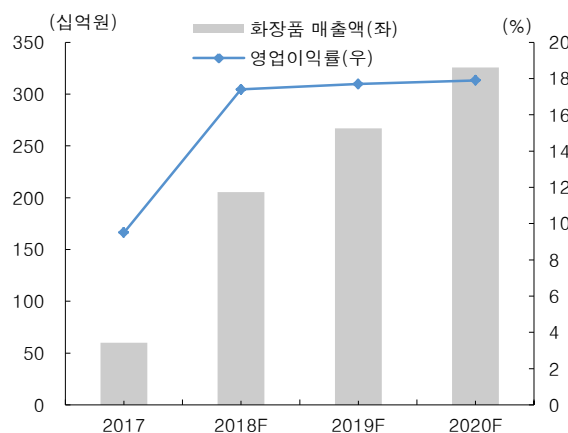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신세계인터 부문별 영업이익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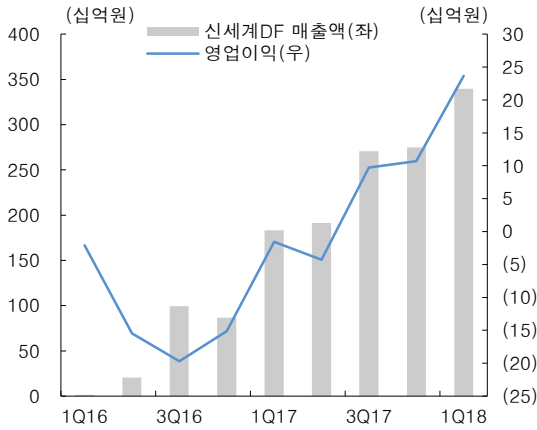
자료: 신세계인터내셔널,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화장품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률



자료: 신세계인터내셔널,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신세계 DF 실적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그림 4] 신세계 시코르 매장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3> 부문별 실적 추정

(단위: 십억원, % YoY, %)

	연간					2017				2018			
	2016	2017	2018F	2019F	2020F	1Q	2Q	3Q	4Q	1Q	2QF	3QF	4QF
매출	1,021	1,103	1,267	1,351	1,467	272	239	269	322	304	289	314	360
해외패션	370	381	384	386	414	94	89	90	108	91	87	93	112
국내패션	339	387	323	331	340	99	74	101	113	89	65	84	85
라이프스타일	185	193	204	208	221	43	48	50	51	45	51	53	55
코스메틱			205	267	326					40	55	55	55
툼보이	128	144	153	161	169	37	29	28	51	40	31	30	53
영업이익	27	25	63	81	96	4.4	4.4	0.9	15.7	12	15	12	24
해외패션	9	6	9	10	12	1.6	1.2	0.2	3.1	3	2	1	4
국내패션	1	9	7	9	10	0.8	0.1	1.4	6.9	2	1	1	3
라이프스타일	13	14	14	15	17	2.0	4.7	3.4	3.6	1	5	4	4
코스메틱			36	47	58					7	10	9	10
툼보이	5	4	7	7	8	1.2	0.2	(2.0)	4.4	2	0	(1)	7
매출 증감	1.6	8.0	14.9	6.6	8.6	9.7	1.5	9.8	10.2	11.8	20.6	17.0	11.6
해외패션	(5.6)	2.9	0.8	0.7	7.1	4.7	(1.0)	2.9	4.9	(2.7)	(2.0)	3.0	4.4
국내패션	6.4	14.0	(16.4)	2.5	2.7	17.0	0.2	16.4	19.9	(10.2)	(12.0)	(17.0)	(24.3)
라이프스타일	6.2	4.6	5.7	2.0	6.3	2.1	3.1	4.9	8.0	3.8	6.0	6.0	6.9
코스메틱				30.0	22.0					NM	NM	NM	NM
툼보이	10.8	12.5	6.0	5.0	5.0	20.5	10.1	20.3	4.9	6.2	7.0	7.0	4.7
매출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해외패션	36.2	34.5	30.3	28.6	28.2	34.5	37.1	33.6	33.4	30.0	30.2	29.6	31.3
국내패션	33.2	35.1	25.5	24.5	23.2	36.5	30.9	37.5	35.0	29.3	22.6	26.6	23.8
라이프스타일	18.1	17.5	16.1	15.4	15.1	16.0	20.1	18.7	16.0	14.8	17.6	16.9	15.3
코스메틱			16.2	19.8	22.2					13.1	19.1	17.5	15.4
툼보이	12.6	13.1	12.1	11.9	11.5	13.7	12.0	10.4	15.7	13.0	10.6	9.5	14.7
영업이익률	2.6	2.3	5.0	6.0	6.5	1.6	1.8	0.3	4.9	3.9	5.3	3.7	6.8
해외패션	2.5	1.6	2.4	2.7	3.0	1.7	1.4	0.2	2.8	2.8	2.8	0.6	3.3
국내패션	0.2	2.4	2.2	2.7	2.9	0.8	0.2	1.4	6.1	2.3	1.7	1.5	3.1
라이프스타일	7.0	7.1	6.7	7.4	7.7	4.7	9.7	6.8	7.0	3.0	9.5	7.0	6.8
코스메틱			17.4	17.7	17.9					18.0	17.5	16.5	17.7
툼보이	3.9	2.6	4.9	4.6	4.6	3.1	0.7	NA	8.7	4.4	0.8	NA	12.3
영업이익 증감	35.6	(5.9)	148.5	27.4	18.7	25.5	(41.1)	59.2	1.7	169.2	244.1	1,176.8	56.0
해외패션	(6.7)	(35.6)	52.5	13.3	19.0	(31.0)	(55.8)	(86.5)	2.1	61.5	100.3	203.1	20.0
국내패션	NM	1,368.9	(23.2)	25.8	10.3	NM	17.6	NM	66.7	149.9	691.4	(9.2)	(61.2)
라이프스타일	8.9	6.4	(0.2)	12.7	10.6	(15.8)	11.9	21.9	2.7	(33.9)	3.9	9.4	4.6
코스메틱				32.2	23.4					NM	NM	NM	NM
툼보이	(2.9)	(24.7)	99.9	(0.2)	5.0	(17.7)	(61.7)	NM	(8.1)	49.3	20.0	NM	47.5

자료: 신세계인터내셔널,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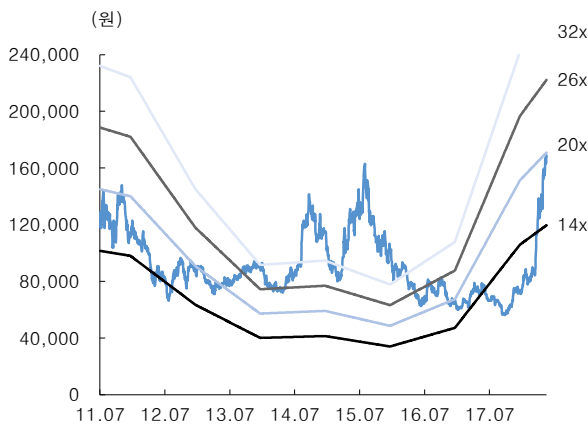
<표 4> 화장품 업종 밸류에이션 비교

(단위: 원, 십억원, %, % YoY, 배)

		신세계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아모레 G	코스맥스	한국콜마	연우	토니모리
투자의견		매수	중립	매수	중립	매수	매수	매수	중립
주가(5/31)		170,000	332,500	1,343,000	126,000	170,000	77,100	29,050	18,050
목표주가		210,000	NM	1,560,000	NM	180,000	88,000	34,000	NM
상승여력		23.5	NM	16.2	NM	5.9	14.1	17.0	NM
시가총액		1,214	19,437	20,975	10,390	1,708	1,627	360	318
매출액증가율	17	8.0	(9.2)	2.9	(10.0)	16.8	23.1	(2.7)	(11.7)
	18F	14.9	26.4	11.8	23.0	53.5	88.5	26.1	15.3
	19F	6.6	12.5	7.6	11.3	13.7	11.5	13.1	8.0
영업이익증가율	17	(5.9)	(29.7)	5.6	(32.4)	(33.2)	(8.8)	(63.6)	(110.8)
	18F	148.5	22.9	14.3	21.5	61.2	71.5	84.0	(534.6)
	19F	27.4	16.9	10.2	17.1	45.6	34.8	36.1	36.5
영업이익률	17	2.3	11.6	14.8	12.1	4.0	8.2	4.0	(0.9)
	18F	5.0	11.3	15.2	12.0	4.2	7.4	5.8	3.5
	19F	6.0	11.8	15.5	12.6	5.3	9.0	7.0	4.4
EPS 증가율	17	38.6	(38.4)	6.8	(42.6)	(51.3)	(10.9)	(61.8)	(142.1)
	18F	124.2	39.8	29.2	41.8	117.5	32.6	60.4	(234.4)
	19F	31.7	16.9	10.8	17.5	32.5	19.8	36.6	31.2
PER	17	22.0	53.3	32.8	58.0	62.3	36.6	46.7	NM
	18F	21.6	42.0	28.2	37.1	39.1	26.4	29.2	43.1
	19F	16.4	35.9	25.5	31.6	29.5	22.1	21.4	32.9
PBR	17	1.1	5.1	6.9	4.0	5.4	5.7	2.0	2.7
	18F	2.1	5.0	6.4	3.4	6.4	4.5	1.9	2.6
	19F	1.9	4.6	5.4	3.1	5.5	3.8	1.7	2.4
ROE	17	5.0	9.8	21.9	7.0	8.8	16.4	4.4	(4.6)
	18F	10.4	12.6	23.6	9.2	17.6	18.5	6.6	6.2
	19F	12.3	13.3	21.9	9.9	20.1	18.8	8.4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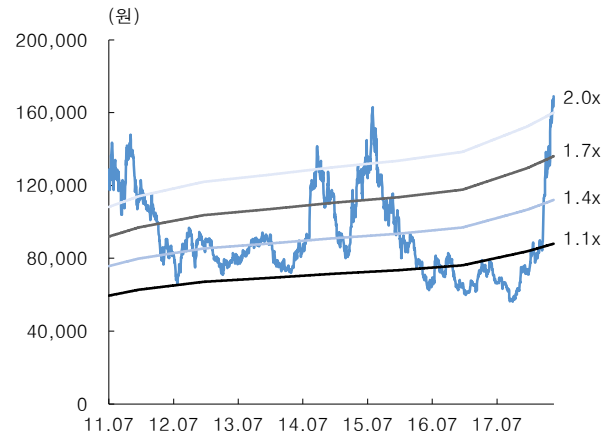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PER 밴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6] PBR 밴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유통 그룹인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로 신세계 백화점의 해외 사업부로 시작해 패션 비즈니스 전문화와 사업 확장을 위해 1996년 별도 법인으로 분리, 설립되었다. 주요 브랜드로는 Armani와 Coach, St.John 등의 수입 명품 브랜드와 GAP, Banana Republic과 같은 SPA 브랜드, VOV, G-Cut 등의 국내 패션 브랜드, 주로 이마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저가 브랜드 DAIZ 등이 있다. 주방 용품 및 가정용품, 패션의류 및 잡화 등을 아우르고 있는 ‘JAJU’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364	368	429	464	511
현금성자산	17	3	13	20	2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7	134	154	164	178
재고자산	224	218	247	263	286
비유동자산	602	583	580	592	612
투자자산	115	123	133	138	146
유형자산	351	332	301	298	295
무형자산	54	46	53	57	62
자산총계	966	951	1,009	1,056	1,122
유동부채	329	304	320	307	31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8	86	99	105	114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108	98	87	77	77
유동성장기부채	95	106	106	106	106
비유동부채	159	151	144	145	125
사채	77	72	66	61	55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78	76	73	79	65
부채총계	488	455	464	451	436
지배주주지분	477	494	544	611	692
자본금	36	36	36	36	36
자본잉여금	121	121	121	121	121
기타자본	0	0	0	0	0
이익잉여금	320	337	387	454	535
비지배주주지분	2	2	2	2	2
자본총계	479	496	546	613	695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54	10	55	61	69
당기순이익	17	24	54	71	8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9	32	31	30	30
무형자산상각비	5	6	6	7	7
자산부채변동	(7)	(62)	(25)	(31)	(34)
기타	10	10	(11)	(16)	(20)
투자활동현금흐름	(33)	(28)	(22)	(32)	(36)
유형자산투자	(38)	(33)	(12)	(39)	(38)
유형자산매각	0	12	12	12	12
투자자산순증	(5)	(9)	2	11	11
무형자산순증	(5)	1	(13)	(10)	(12)
기타	15	1	(11)	(6)	(9)
재무활동현금흐름	(14)	4	(23)	(14)	(24)
자본의증가	1	0	0	0	0
차입금의순증	(11)	8	(18)	(10)	(20)
배당금지급	(4)	(4)	(4)	(4)	(4)
기타	0	0	(1)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6	(14)	10	15	9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021	1,103	1,267	1,351	1,467
매출원가	503	528	567	590	631
매출총이익	518	575	701	760	836
판매관리비	491	549	637	680	740
영업이익	27	25	63	81	96
금융수익	16	25	1	1	1
이자수익	1	1	1	1	1
금융비용	21	29	8	8	8
이자비용	8	9	8	8	8
기타영업외손익	(5)	1	5	6	6
관계기업관련손익	8	9	12	16	19
세전계속사업이익	25	32	72	95	115
법인세비용	8	8	18	24	29
연결당기순이익	17	24	54	71	8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7	24	54	71	86
기타포괄이익	(0)	(2)	0	0	0
총포괄이익	17	22	54	71	86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7	22	54	71	86
EBITDA	61	63	100	117	132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2,432	3,371	7,558	9,954	12,025
BPS	66,769	69,236	76,193	85,548	96,972
DPS	600	600	600	600	60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1.6	8.0	14.9	6.6	8.6
영업이익증가율	35.6	(5.9)	148.5	27.4	18.7
순이익증가율	(17.8)	38.6	124.2	31.7	20.8
EPS증가율	(17.8)	38.6	124.2	31.7	20.8
EBITDA증가율	18.7	3.1	59.9	17.0	12.8
수익성(%)					
영업이익률	2.6	2.3	5.0	6.0	6.5
순이익률	1.7	2.2	4.3	5.3	5.9
EBITDA Margin	6.0	5.7	7.9	8.7	9.0
ROA	1.9	2.5	5.5	6.9	7.9
ROE	3.7	5.0	10.4	12.3	13.2
배당수익률	0.9	0.8	0.4	0.4	0.4
배당성향	24.7	17.8	7.9	6.0	5.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340	348	319	301	272
차입금/자본총계비율(%)	74.9	72.2	62.3	53.9	44.8
Valuation(X)					
PER	27.2	22.0	22.5	17.1	14.1
PBR	1.0	1.1	2.2	2.0	1.8
EV/EBITDA	13.4	14.0	15.4	13.0	11.3

# 통신서비스

## 4월 이동통신: 데이터 성장세 가속, 경쟁 완화

### 4월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량 증가, 마케팅비용 감소

4월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수와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 양적, 질적 성장세가 이어졌다. 특히 데이터 이용량이 7.2GB에 달하며 트래픽 증가세가 가속화됐다. 개통 가입자수(단말기 판매대수)가 줄어든 데다 개통 가입자 중 기기변경 비중이 높아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점유율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 1. 4G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7.2GB로 16.5% 증가

4월 4G LTE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7.2GB로 전년동월대비 16.5% 늘어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데이터 이용량 7.2GB는 51,000원 요금제의 제공량 6.5GB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18년 1분기 가입자 평균 요금이 32,655원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이용량 증가가 데이터 추가 구매 및 요금제 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 2. 알뜰폰과 사물인터넷 위주 성장으로 마케팅비용 감소

4월 이동통신 가입자는 6,361만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9% 늘었다. 가입자수가 전월대비 21.4만명 늘어 가입자 성장세가 이어졌다. 순증 가입자 중 가입자당 유치비용이 적은 사물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76.6%로 높았다. 마케팅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4월 사물인터넷 가입자수는 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3% 늘었으며 보급률이 11.1%로 높아졌다.

### 3. 단말기 판매량(개통 가입자)은 전월대비 18.7% 감소, 경쟁 완화

4월 이통 3사(알뜰폰 제외) 단말기 판매량(개통 가입자수)은 169만대(알뜰폰 포함 시 196만대)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18.7%, 1.7% 감소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데다 전월의 갤럭시S9 출시 효과 때문이다. 개통 가입자 중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51.4%로 17년 월평균 45.8%를 상회했다. 마케팅 경쟁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 상승

이통 3사 모두 가입자는 증가 추세이나 전략은 달랐다. SK텔레콤과 KT는 사물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주력해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유치가 미미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요금이 비싼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위주로 성장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 비중확대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KT	매수	38,700원
LG유플러스	매수	17,600원

### 양종인

jiyang@truefrined.com

### 조민영

minyoung@truefriend.com

### 요금 규제 완화, 5G가 주가에 반영될 것

통신주는 17년 5월 이후 요금 규제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규제 완화, 5G, 유료방송 구조조정 수혜로 모멘텀이 예상된다. 보편 요금제는 국회에 상정될 것이나 시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반기에 규제 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다. 5G는 비용 부담 우려가 줄어들며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5G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당 할당 한도 제한으로 경쟁이 미미할 것이다. 5G 설비 투자는 4G망 공유로 투자비 절감이 예상된다. 5G는 혁신적인 차세대 서비스로 성장성이 높을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 수혜가 예상된다. IPTV는 CATV 인수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늘릴 것이다. 통신업체의 배당수익률은 3.5~4.5%로 높아 배당 메리트가 높다.

〈표 1〉 가입자와 점유율 추이

(단위: 천명, %, %p)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1	2	3	4	MoM	YoY
<b>이통 가입자수</b>										
SKT	26,138	25,928	26,428	26,753	26,755	26,802	26,880	26,897	0.1	1.0
KT	14,816	14,854	15,276	16,034	16,146	16,230	16,332	16,398	0.4	5.2
LGU+	10,772	11,234	11,743	12,342	12,382	12,435	12,515	12,570	0.4	5.1
MVNO(알뜰폰)	4,584	5,921	6,841	7,523	7,562	7,598	7,668	7,744	1.0	9.5
<b>합산</b>	<b>56,310</b>	<b>57,937</b>	<b>60,287</b>	<b>62,651</b>	<b>62,845</b>	<b>63,066</b>	<b>63,395</b>	<b>63,609</b>	<b>0.3</b>	<b>3.9</b>
<b>순중 가입자수</b>										
SKT	(148)	(210)	500	325	3	47	77	17	(77.7)	(55.5)
KT	(470)	38	422	758	112	84	103	65	(36.2)	(7.0)
LGU+	147	462	509	599	41	53	79	55	(30.5)	(3.6)
MVNO(알뜰폰)	2,099	1,337	920	682	39	37	70	76	9.3	39.9
<b>합산</b>	<b>1,629</b>	<b>1,627</b>	<b>2,351</b>	<b>2,363</b>	<b>195</b>	<b>220</b>	<b>329</b>	<b>214</b>	<b>(35.0)</b>	<b>(3.1)</b>
<b>이통 3사 점유율(알뜰폰 포함)</b>										
SKT	50.22	49.41	49.09	48.20	48.07	47.98	47.87	47.79	(0.09)	(1.04)
KT	30.00	30.41	30.62	31.22	31.32	31.37	31.42	31.44	0.02	0.56
LGU+	19.78	20.18	20.29	20.59	20.62	20.65	20.71	20.77	0.06	0.48
<b>이통 3사 점유율(알뜰폰 제외)</b>										
SKT	50.53	49.85	49.45	48.53	48.40	48.32	48.24	48.15	(0.09)	(1.01)
KT	28.64	28.56	28.58	29.08	29.21	29.26	29.31	29.35	0.04	0.58
LGU+	20.83	21.60	21.97	22.39	22.40	22.42	22.46	22.50	0.04	0.43

주: 가입자는 설비관리 목적 회선 제외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표 2> 가입자 순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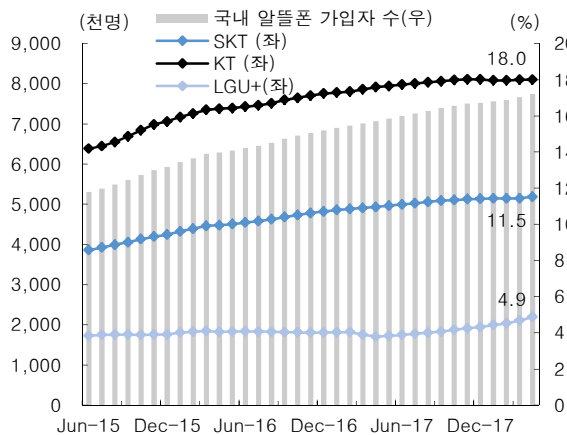
(단위: 천명)

		7	8	9	10	11	12	2018.1	2	3	4
SKT	알뜰폰(A)	24	28	28	13	16	4	10	4	13	31
	사물인터넷(B)	5	20	32	8	(5)	6	1	5	14	6
	자사 휴대폰(C)	25	(1)	1	9	3	(17)	1	42	63	11
	<b>합산(A+B+C)</b>	<b>55</b>	<b>47</b>	<b>61</b>	<b>31</b>	<b>15</b>	<b>(7)</b>	<b>13</b>	<b>51</b>	<b>91</b>	<b>48</b>
KT	알뜰폰(A)	26	27	30	28	26	3	12	19	30	16
	사물인터넷(B)	36	48	70	59	58	35	77	64	92	64
	자사 휴대폰(C)	15	6	6	4	9	(6)	35	20	11	1
	<b>합산(A+B+C)</b>	<b>77</b>	<b>82</b>	<b>106</b>	<b>91</b>	<b>94</b>	<b>32</b>	<b>124</b>	<b>103</b>	<b>133</b>	<b>82</b>
LGU+	알뜰폰(A)	10	10	11	15	13	11	17	14	26	29
	사물인터넷(B)	24	18	30	22	22	17	33	38	35	17
	자사 휴대폰(C)	35	29	22	16	25	10	8	15	44	38
	<b>합산(A+B+C)</b>	<b>69</b>	<b>57</b>	<b>64</b>	<b>53</b>	<b>60</b>	<b>37</b>	<b>58</b>	<b>67</b>	<b>106</b>	<b>84</b>
3사 합산	알뜰폰(A)	59	65	70	56	56	18	39	37	70	76
	사물인터넷(B)	65	86	132	89	76	58	111	107	141	88
	자사 휴대폰(C)	76	35	29	29	37	(14)	45	76	118	50
	<b>합산(A+B+C)</b>	<b>201</b>	<b>186</b>	<b>231</b>	<b>175</b>	<b>169</b>	<b>62</b>	<b>195</b>	<b>220</b>	<b>329</b>	<b>214</b>

주: 가입자는 설비관리 목적 회선 제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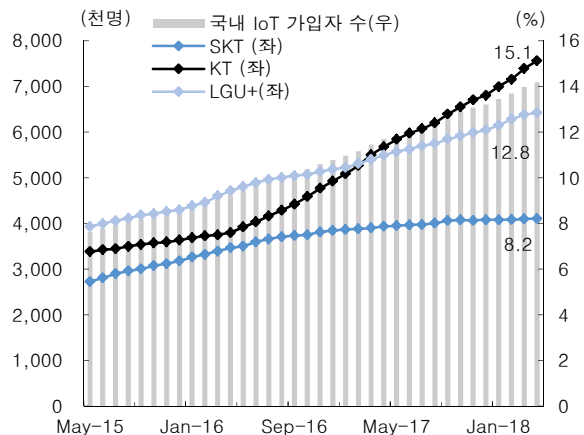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알뜰폰 가입자 및 각 사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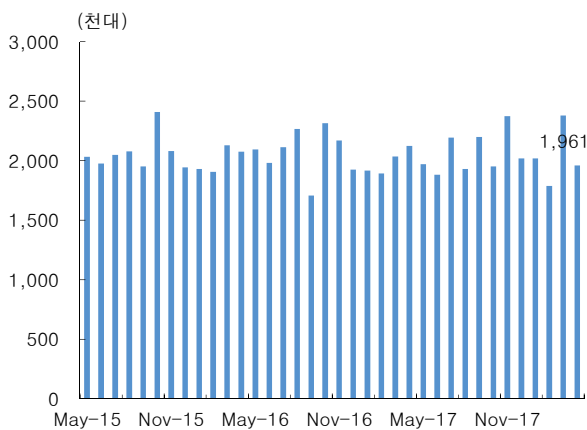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사물인터넷 가입자 및 각 사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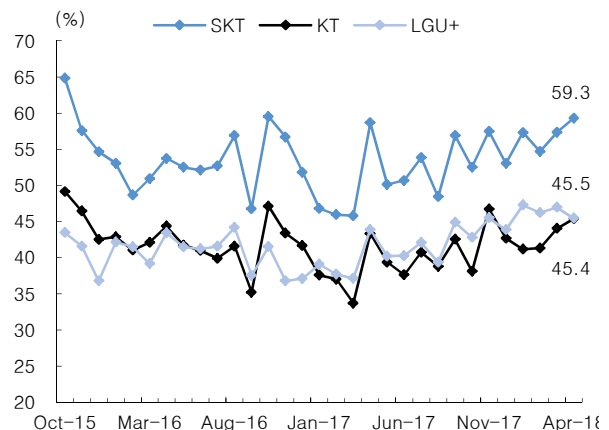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단말기 판매 대수(개통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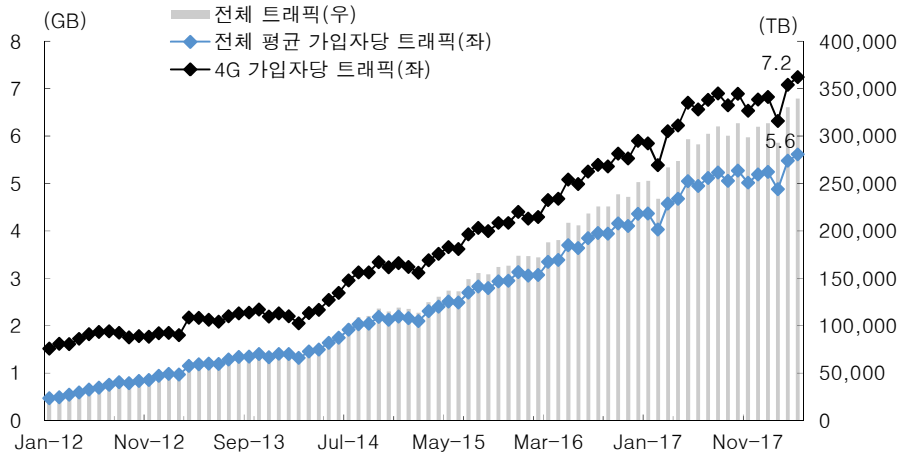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기기변경/개통 가입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투자증권

<표 3> 커버리지 valuation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실적 및 Valuation										
종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ROE (%)	EV/EBITDA (배)	DY (%)	
KT (030200)	투자의견	매수	2016A	22,744	1,440	711	2,904	47,113	10.1	0.6	6.4	2.7	2.7
	목표주가(원)	38,700	2017A	23,387	1,375	477	1,946	48,017	15.5	0.6	4.1	2.6	3.3
	현재가 (5/31, 원)	27,000	2018F	23,432	1,401	610	2,489	49,136	10.8	0.5	5.2	2.3	3.9
	시가총액(십억원)	7,050	2019F	23,898	1,459	651	2,656	50,364	10.2	0.5	5.4	2.2	4.1
				2020F	24,425	1,574	735	2,999	51,914	9.0	0.5	5.9	2.1
LG유플러스 (032640)	투자의견	매수	2016A	11,451	746	493	1,129	11,054	10.1	1.0	10.6	3.6	3.1
	목표주가(원)	17,600	2017A	12,279	826	547	1,253	11,985	11.2	1.2	10.9	3.6	2.9
	현재가 (5/31, 원)	11,700	2018F	12,108	795	475	1,088	12,692	10.8	0.9	8.8	3.2	3.5
	시가총액(십억원)	5,108	2019F	12,500	832	519	1,189	13,490	9.8	0.9	9.1	2.9	3.6
				2020F	12,742	911	584	1,338	14,407	8.7	0.8	9.6	2.7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 자동차

## 비중확대

### 5월 판매 - 더딘 중국의 회복

#### 현대차 5.7% 증가, 기아차 9% 증가

현대차와 기아차 5월 판매는 국내 신차판매 호조와 중국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5월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차 387,017대(+5.7%, 이하 모두 YoY), 기아차 247,176대(+9%)를 기록했다(도매판매 기준). 국내판매는 현대차가 2.1%, 기아차가 8.1% 늘었다. 현대차는 3월 출시된 신형 싼타페(10,668대, +141%) 이외에도 16년 11월에 출시된 그랜저(10,436대, -17.1%)가 여전히 판매를 견인했다. 기아차는 신형 K3(5,024대, +123%), 부분변경(facelift) 카니발(8,002대, +30%) 이외에 신형 K9(1,705대)도 판매가 늘었다. 해외판매는 중국 기저효과로 현대차가 6.4% 증가했고 기아차가 9.2% 늘었다.

#### 더디게 진행되는 중국 판매회복

5월 판매는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당사 예상치에는 소폭 미달했다. 이는 중국 판매가 기대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5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판매는 각각 6만대와 3만대를 소폭 상회하며 시장 기대치인 7.2만대와 3.3만대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로 인한 기저효과가 9월까지 이어지나 판매가 일부 신차와 중저가모델에만 집중되는 상황이다. 중국 판매회복을 위해 중저가 모델 도입시기와 범위를 앞당기고 기존 모델의 판촉활동 또한 강화할 전망이다. 5월까지의 판매량과 중국 상황을 감안 시 기아차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주가하락이 이러한 우려를 상당부분 선반영한 상황이다. 현 주가에서는 하반기 실적회복과 2019년 턴어라운드에 더욱 주목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김진우, CFA

jinwoo.kim@truefriend.com

<표 1> 국내 완성차 업체별 5월 판매

(단위: 대, %)

	2018. 5	2017. 5	YoY	2018. 4	MoM	2018 YTD	2017 YTD	YoY
현대차	387,017	366,256	5.7	391,783	(1.2)	1,828,189	1,785,830	2.4
기아차	247,176	226,826	9.0	240,620	2.7	1,134,170	1,091,274	3.9
한국 GM	40,879	43,085	(5.1)	38,575	6.0	199,840	235,306	(15.1)
쌍용차	12,920	12,349	4.6	10,930	18.2	54,514	57,648	(5.4)
르노삼성	16,101	20,517	(21.5)	23,096	(30.3)	104,097	110,272	(5.6)
<b>합계</b>	<b>704,093</b>	<b>669,033</b>	<b>5.2</b>	<b>705,004</b>	<b>(0.1)</b>	<b>3,320,810</b>	<b>3,280,330</b>	<b>1.2</b>
<b>&lt;내수&gt;</b>								
현대차	61,896	60,607	2.1	63,788	(3.0)	294,887	282,946	4.2
기아차	47,046	43,522	8.1	50,004	(5.9)	221,700	208,828	6.2
한국 GM	7,670	11,854	(35.3)	5,378	42.6	32,968	61,253	(46.2)
쌍용차	9,709	10,238	(5.2)	8,124	19.5	41,821	42,934	(2.6)
르노삼성	7,342	9,222	(20.4)	6,903	6.4	33,800	45,074	(25.0)
<b>합계</b>	<b>133,663</b>	<b>135,443</b>	<b>(1.3)</b>	<b>134,197</b>	<b>(0.4)</b>	<b>625,176</b>	<b>641,035</b>	<b>(2.5)</b>
<b>&lt;해외판매&gt;</b>								
현대차	325,121	305,649	6.4	327,995	(0.9)	1,533,302	1,502,884	2.0
기아차	200,130	183,304	9.2	190,616	5.0	912,470	882,446	3.4
한국 GM	33,209	31,231	6.3	33,197	0.0	166,872	174,053	(4.1)
쌍용차	3,211	2,111	52.1	2,806	14.4	12,693	14,714	(13.7)
르노삼성	8,759	11,295	(22.5)	16,193	(45.9)	70,297	65,198	7.8
<b>합계</b>	<b>570,430</b>	<b>533,590</b>	<b>6.9</b>	<b>570,807</b>	<b>(0.1)</b>	<b>2,695,634</b>	<b>2,639,295</b>	<b>2.1</b>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표 2> 현대기아차 5월 판매 세부내역

(단위: 대, %)

	2018. 5	2017. 5	YoY	2018. 4	MoM	2018 YTD	2017 YTD	YoY
<b>현대차</b>								
국내판매	61,896	60,607	2.1	63,788	(3.0)	294,887	282,946	4.2
해외판매	325,121	305,649	6.4	327,995	(0.9)	1,533,302	1,502,884	2.0
<b>현대차 합계</b>	<b>387,017</b>	<b>366,256</b>	<b>5.7</b>	<b>391,783</b>	<b>(1.2)</b>	<b>1,828,189</b>	<b>1,785,830</b>	<b>2.4</b>
<b>기아차</b>								
국내판매	47,046	43,522	8.1	50,004	(5.9)	221,700	208,828	6.2
해외판매	200,130	183,304	9.2	190,616	5.0	912,470	882,446	3.4
<b>기아차 합계</b>	<b>247,176</b>	<b>226,826</b>	<b>9.0</b>	<b>240,620</b>	<b>2.7</b>	<b>1,134,170</b>	<b>1,091,274</b>	<b>3.9</b>
<b>그룹 합계</b>	<b>634,193</b>	<b>593,082</b>	<b>6.9</b>	<b>632,403</b>	<b>0.3</b>	<b>2,962,359</b>	<b>2,877,104</b>	<b>3.0</b>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표 3〉 현대차 5월 내수판매 세부내역

(단위: 대, %)

	2018. 5	2017. 5	YoY	2018. 4	MoM
엑센트	387	470	(17.7)	564	(31.4)
벨로스터	335	19	1,663.2	435	(23.0)
아반떼	6,565	7,834	(16.2)	5,898	11.3
아이오닉	814	1,009	(19.3)	852	(4.5)
i30	231	361	(36.0)	265	(12.8)
쏘나타	5,542	7,597	(27.1)	5,699	(2.8)
i40	13	53	(75.5)	28	(53.6)
그랜저	10,436	12,595	(17.1)	9,904	5.4
아슬란	0	39	-	-	-
<b>승용</b>	<b>24,323</b>	<b>29,977</b>	<b>(18.9)</b>	<b>23,645</b>	<b>2.9</b>
코나	3,741	-	-	3,490	7.2
투싼	2,966	4,422	(32.9)	2,703	9.7
넥쏘	62	-	-	51	21.6
싼타페	10,668	4,431	140.8	11,837	(9.9)
맥스크루즈	140	570	(75.4)	203	(31.0)
<b>RV</b>	<b>17,577</b>	<b>9,423</b>	<b>86.5</b>	<b>18,284</b>	<b>(3.9)</b>
스타렉스	3,073	3,824	(19.6)	4,237	(27.5)
포터	9,304	10,012	(7.1)	9,444	(1.5)
<b>소상</b>	<b>12,377</b>	<b>13,836</b>	<b>(10.5)</b>	<b>13,681</b>	<b>(9.5)</b>
버스	744	734	1.4	804	(7.5)
트럭	2,096	2,217	(5.5)	2,226	(5.8)
<b>대형</b>	<b>2,840</b>	<b>2,951</b>	<b>(3.8)</b>	<b>3,030</b>	<b>(6.3)</b>
G70	967	-	-	1,103	(12.3)
G80/제네시스	2,976	3,051	(2.5)	3,132	(5.0)
EQ900	836	1,369	(38.9)	913	(8.4)
<b>제네시스 계</b>	<b>4,779</b>	<b>4,420</b>	<b>8.1</b>	<b>5,148</b>	<b>(7.2)</b>
<b>국내판매 계</b>	<b>61,896</b>	<b>60,607</b>	<b>2.1</b>	<b>63,788</b>	<b>(3.0)</b>

자료: 현대차, 한국투자증권

〈표 4〉 기아차 5월 내수판매 세부내역

(단위: 대, %)

	2018. 5	2017. 5	YoY	2018. 4	MoM
모닝	5,021	6,436	(22.0)	5,293	(5.1)
레이	2,282	1,694	34.7	2,619	(12.9)
프라이드	-	408	-	-	-
K3	5,024	2,254	122.9	6,925	(27.5)
K5	3,613	3,377	7.0	4,119	(12.3)
K7	2,890	3,849	(24.9)	3,002	(3.7)
스팅어	669	370	80.8	463	44.5
K9	1,705	107	1,493.5	1,222	39.5
<b>승용</b>	<b>21,204</b>	<b>18,495</b>	<b>14.6</b>	<b>23,643</b>	<b>(10.3)</b>
카렌스	199	321	(38.0)	211	(5.7)
카니발	8,002	6,160	29.9	8,828	(9.4)
쏘울	236	241	(2.1)	305	(22.6)
스토닉	1,004	-	-	1,487	(32.5)
니로	1,687	1,922	(12.2)	1,403	20.2
스포티지	2,856	3,634	(21.4)	2,726	4.8
쏘렌토	5,559	5,507	0.9	5,237	6.1
모하비	637	1,783	(64.3)	739	(13.8)
<b>RV</b>	<b>20,180</b>	<b>19,568</b>	<b>3.1</b>	<b>20,936</b>	<b>(3.6)</b>
트럭	5,456	5,319	2.6	5,300	2.9
버스	107	118	(9.3)	122	(12.3)
특수	99	22	350.0	3	3,200.0
<b>상용</b>	<b>5,662</b>	<b>5,459</b>	<b>3.7</b>	<b>5,425</b>	<b>4.4</b>
<b>국내판매계</b>	<b>47,046</b>	<b>43,522</b>	<b>8.1</b>	<b>50,004</b>	<b>(5.9)</b>

자료: 기아차, 한국투자증권

〈표 5〉 글로벌 자동차업체 valuation

(단위: x, %)

	TOYOTA	HONDA	NISSAN	FORD	GM	VW	SAIC	FCA	현대차	기아차	평균
<b>PER</b>											
2016	10.0	9.8	6.5	6.9	5.5	13.4	8.1	5.1	7.3	5.7	7.8
2017	8.1	6.2	5.8	7.9	5.8	7.5	10.8	5.8	10.4	13.9	8.2
2018F	9.0	8.4	7.6	7.5	5.9	6.0	11.0	5.4	8.9	7.1	7.7
2019F	8.4	7.7	6.9	7.5	5.8	5.7	10.1	5.2	7.5	5.9	7.1
<b>PBR</b>											
2016	1.0	0.8	0.9	1.7	1.2	0.8	1.3	0.9	0.5	0.6	1.0
2017	1.1	0.8	0.8	1.4	1.6	0.9	1.7	1.4	0.5	0.5	1.1
2018F	1.0	0.7	0.7	1.2	1.4	0.7	1.7	1.1	0.5	0.4	0.9
2019F	0.9	0.7	0.7	1.0	1.1	0.6	1.6	0.9	0.5	0.4	0.8
<b>ROE</b>											
2016	10.4	8.8	13.8	15.9	22.5	5.9	17.4	10.0	8.4	10.8	12.4
2017	13.4	13.9	14.6	23.7	(9.8)	11.5	16.5	17.5	5.9	3.6	11.1
2018F	11.5	8.8	10.0	17.7	24.4	12.2	15.8	21.2	5.6	6.7	13.4
2019F	11.2	9.1	10.3	15.5	22.1	11.7	15.7	19.1	6.5	7.5	12.9
<b>EV/EBITDA</b>											
2016	9.0	7.3	1.8	2.5	2.1	1.5	12.9	2.0	9.2	3.6	5.2
2017	8.4	7.3	1.9	3.0	2.4	2.0	15.0	2.4	9.7	4.8	5.7
2018F	12.4	9.0	2.8	2.7	2.7	2.3	7.6	2.0	10.3	3.7	6.1
2019F	12.0	8.3	2.6	2.7	2.5	3.0	6.5	1.8	9.1	3.2	5.7
<b>OPM</b>											
2016	7.2	6.0	6.3	3.8	6.7	3.3	2.4	4.6	5.5	4.7	5.0
2017	8.2	5.4	4.8	3.1	6.9	4.8	2.7	6.9	4.7	1.2	4.9
2018F	8.0	5.4	4.9	3.4	5.5	7.5	4.5	6.9	4.4	3.0	5.4
2019F	8.4	5.7	5.4	4.0	5.5	7.8	4.8	6.9	5.0	3.5	5.7
<b>EBITDA margin</b>											
2016	13.1	10.8	13.5	9.5	13.3	12.8	3.3	10.0	9.1	7.9	10.3
2017	14.1	10.1	12.3	8.5	15.3	14.4	3.7	12.2	8.4	4.7	10.4
2018F	11.2	9.0	8.5	7.8	12.5	15.2	5.2	12.3	8.2	6.5	9.7
2019F	11.6	9.3	8.9	8.3	12.7	15.3	5.7	12.4	8.7	7.0	10.0
<b>EPS growth</b>											
2016	(18.3)	79.0	32.8	(8.8)	21.9	4.6	7.4	25.0	(15.8)	4.7	13.2
2017	39.1	72.7	15.1	1.1	8.2	35.6	1.9	46.9	(25.4)	(64.9)	13.0
2018F	(9.9)	(30.9)	(25.6)	(13.8)	(3.7)	(5.0)	9.3	37.9	(16.3)	87.6	2.9
2019F	7.6	8.5	11.6	(0.9)	0.5	6.2	8.8	5.7	19.5	20.0	8.7
<b>Dividend yield</b>											
2016	3.5	2.7	4.5	7.0	4.4	1.5	7.0	0.0	2.7	2.8	3.6
2017	3.2	2.7	4.8	5.2	3.7	1.2	5.7	0.0	2.6	2.4	3.2
2018F	3.3	3.3	5.2	5.2	4.1	3.4	5.6	0.1	3.2	3.1	3.7
2019F	3.5	3.6	5.4	5.3	4.2	3.9	6.0	0.6	3.5	3.6	4.0
<b>Dividend payout</b>											
2016	34.5	26.9	28.5	73.5	24.8	n/a	60.2	0.0	19.9	16.0	30.4
2017	25.9	16.9	27.8	34.0	667.2	8.9	62.1	0.0	26.7	33.1	90.3
2018F	28.5	27.9	39.4	39.1	24.0	20.3	61.0	0.8	28.5	22.1	29.2
2019F	29.5	27.9	37.3	39.9	24.2	22.4	60.6	3.0	26.3	21.2	29.2

주: 2018년 6월 1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5월 수출 호조 속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폭탄이 중국에 이어 EU와 캐나다, 멕시코에까지 확대되며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에 일제히 하락. 2,420P선 아래로 밀려나며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 매도세가 상승을 제한하며 장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이 이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을 주도, 2,440P선에 바짝 다가서며 이를 연속 상승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전환 후 880P선을 회복. 지난 5월 수출이 반도체와 기계 부문 선전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 역대 5번째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시장에 호재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갓 오브 하이스쿨 with 네이버 웹툰'이 콜라보레이션 효과로 매출 순위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소식과 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와이디온라인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시술 건수 증가 및 바이오USA 참가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연속 강세를 보임. 동물용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 전문 업체인 현대사료는 신규 상장 첫날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 인기 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세 지속 기대감에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경신. 또한, 원화 강세와 제품가격 인상 등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음식료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한-러 실무접촉 소식 및 남북 고위급 회담 기대감 등으로 남-북-러 가스관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강관, 철강, 밸브 등 수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LCD TV 가격 하락에 따른 2분기 실적 추정 하향으로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하향함에 따라 LG전자가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으며, 대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되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일부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b>코오롱생명과학 (102940)</b> <b>▶74,000 (+6.47%)</b>	<b>'인보사' 기대감에 급등세</b> -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시술 건수가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7개월 여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인보사 투여가 가능한 유전자치료기관이 현재 640여 곳으로 출시 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다음주부터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의약품 비즈니스 행사인 '2018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참가해 단독부스를 설치하고 '인보사'의 연구개발 성과 및 상품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b>현대사료(016790)</b> <b>▶17,150 (상한가)</b>	<b>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b> - 동물용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 전문 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 후 상한가를 기록 - 공모자금을 통해 배합사료에서 축산물 사업으로 연계되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해 종합 축산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며 최근 정부가 북한에 대한 농업 지원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
<b>음식료</b>	<b>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b> -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며 중국향 매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제품 가격 인상 효과와 원화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삼양식품(003230, +10.89%), 대상(001680, +7.10%), 오투기(007310, +5.80%), 사조해표(079660, +4.27%), 하림(136480, +4.22%), 사조대립(003960, +3.30%), SPC삼립(005610, +3.17%), 농심(004370, +2.61%) 등 강세
<b>통신장비주</b>	<b>5G 상용화 기대감에 강세</b> - 정부가 오는 15일 5G 주파수 경매에 나서며 내년 3월 5G 상용화가 예상돼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이노와이어리스(073490, +14.33%), 쉐리드(050890, +12.97), 다산네트웍스(039560, +9.01%), 케이엘더블유(032500, +6.06%), 우리로(046970, +5.93%), 삼지전자(037460, +5.74%), 대한광통신(010170, +5.06%) 등 강세
<b>가스관 관련주</b>	<b>남-북-러 가스관 사업 기대감에 강세</b> -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PNG)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철강, 밸브,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수혜 관련주 강세 - 화성밸브(039610, 상한가), 대동스틸(048470, +16.52%), 디케이락(105740, +14.62%), 하이스틸(071090, +14.43%), 한솔신력(099660, +11.92%), 삼현철강(017480, +9.78%), 한국가스공사(036460, +3.6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뉴욕증시는 이탈리아 연정 구성 무산에 따른 정치불안과 관세폭탄이 중국에 이어 EU, 캐나다, 멕시코까지 확대되며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며 약세를 보임
- 국내증시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남북 고위급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대북 경험 관련 수혜주가 등락을 거듭했으며,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이탈리아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로 코스피가 주중 2,410P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2,440P선에 근접하며 한주를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880P선을 회복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삼성전기	138,500	6.5	산업재	종이목재	이건산업	19,700	37.6
	소재	비금속	한국석유	216,000	50.3	산업재	서비스업	한미글로벌	11,800	13.8
	소재	철강금속	동양철관	3,305	45.4	에너지	유통업	대성산업	6,300	25.5
	소재	철강금속	휴스틸	16,900	10.5	유틸리티	전기가스	한국가스공사	62,500	7.1
	소재	철강금속	하이스틸	55,500	55.0	필수소비재	음식료	삼양식품	112,000	13.7
	소재	철강금속	대호에이엘	7,980	78.9	경기소비재	화학	코스맥스	175,000	9.4
	소재	종이목재	무림P&P	8,730	13.0	경기소비재	유통업	호텔신라	128,000	5.3
	산업재	화학	애경산업	57,400	17.4	경기소비재	유통업	웰바이오텍	5,400	38.2
	산업재	운수장비	현대로템	40,250	40.5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티에이치엔	3,300	20.6
코스닥	IT	IT부품	신흥에이씨	41,500	13.5	금융	금융서비스	글로벌텍스프리	11,000	13.4
	IT	반도체	루미마이크로	3,000	32.6	산업재	금속	한솔신택	1,925	25.4
	IT	반도체	유니테스트	19,200	4.3	산업재	화학	CSA 코스믹	15,000	14.3
	IT	인터넷	카페24	173,200	8.8	산업재	비금속	SG	15,350	54.5
	IT	인터넷	가비아	8,800	14.8	산업재	기계,장비	에버다임	12,250	33.1
	IT	인터넷	케이아이엔엑스	25,250	4.8	산업재	기계,장비	디케이락	8,860	32.5
	IT	통신장비	케이엠더블유	28000	7.1	산업재	기계,장비	화성밸브	12,450	57.6
	IT	정보기기	코텍	17,000	3.4	산업재	전문기술	유신	27,650	24.1
	IT	정보기기	푸른기술	23,700	66.2	건강관리	제약	메디투스	773,000	7.0
	IT	기계,장비	디에이테크놀로지	17,450	6.0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팜스토리	1,530	11.1
	IT	소프트웨어	네오디안테크놀로지	2,525	19.8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이지바이오	9,240	18.3
	IT	소프트웨어	아프리카TV	49300	17.0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한일사료	2,505	21.5
	IT	소프트웨어	대아티아이	10,600	62.5	경기소비재	게임오락	스튜디오드래곤	110,400	14.0
	소재	화학	티케이케미칼	2,645	10.0	경기소비재	오락,문화	JYP Ent.	25,000	11.7
	소재	금속	썬네트	2,520	22.1	경기소비재	출판,매체	양지사	12,500	6.7
	소재	금속	대동스틸	13,400	47.0	경기소비재	출판,매체	SM Life Design	3,745	92.2

주) 상기 종목들은 6월 1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 단기 유망종목: 매일유업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매일유업 (267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익 제품 비중 상승, 원유 손실 축소로 유가공 마진 개선 지속</li> <li>- 중국향 분유 수출은 바닥 통과 후 점진적인 개선 진행 중</li> <li>- 작년 2분기는 사드 영향으로 수출 분유의 기저가 낮아서 2분기 실적 개선 예상</li> </ul>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7. 12	918	54	40	5,078	13.6
2018. 12F	1,422	87	64	8,174	10.9	

- 편입 제외 종목: 롯데정밀화학(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9.6%)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LG이노텍 (011070)	148,000 (+2.4)	144,50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이 올해 8~9월부터 신모델 3종을 출시할 예정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빠르게 반등할 전망</li> <li>- 신기술 카메라모듈 탑재가 지난해 1종에서 올해는 3종으로 늘어나고 출시 시기도 빨라져 광학사업부 수혜 예상</li> <li>- 스마트폰 내 신기술카메라모듈 채용률이 지난해 15%, 올해 59%, 내년 93%까지 상승할 전망</li> </ul>
와이엠티 (251370)	35,250 (+7.3)	32,850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PCB 최종표면처리용 금도금 소재 및 RFPCB 동도금 소재의 국산화율 상승과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세 지속 전망</li> <li>-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른 수혜 예상</li> <li>- 기존 사업 영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후공정 소재 부문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전망</li> </ul>
유진기업 (023410)	9,710 (+19.3)	8,140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TX-A 노선 등 정부의 공공 및 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레미콘의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 전망</li> <li>- 지난해 인수한 현대저축은행의 실적이 올해부터 온기로 반영되며 전사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li> <li>-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바다모래 조달이 재개된다면, 레미콘 업체의 원가율에 긍정적 영향</li> </ul>
대림산업 (000210)	84,200 (-2.0)	85,900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TX-A 공사에서 신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수혜 전망</li> <li>- B/S 개선과 더불어 2분기부터 추세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li> <li>- 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근절로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li> </ul>
코텍 (052330)	17,000 (+12.6)	15,100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슬롯머신 1위, 2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한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기업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li> <li>- 고객사의 커버드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카지노모니터 부문의 영업이익률 상승 예상</li> <li>- 현금성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로 배당 확대 여력 충분</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LG이노텍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포스코강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포스코강판 (058430)	23,900 (+5.8)	22,600 (5/30)	944	25	23	3,757	6.0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한국타이어 (161390)	44,550 (-8.4)	48,650 (5/17)	7,083	892	735	5,932	7.2
- 타이어 제조사의 평균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유통단계를 거친 소매가격이 70% 이상 급등하며 유통사업 부각 - 직거래 강화와 테스트이션의 플랫폼화로 유통구조 혁신 기대 - 장기 전략과 실적 회복, 밸류에이션 감안 시 현 주가는 매력적							
SK (034730)	279,500 (-7.9)	303,500 (5/3)	97,989	6,289	1,802	32,063	8.7
- SK E&S는 원전가동을 하락으로 상반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며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3상 발표 등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기대 - 에너지/반도체/바이오 부문에 걸친 비상장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 전망 - 지배구조 개편으로 밸류에이션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기 (009150)	138,500 (+19.9)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2.5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현대중공업지주 (267250)	385,500 (-11.3)	434,500 (2/27)	25,018	2,175	1,170	79,950	4.8
- 설비고도화에 따른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매출 큰 폭 증가 - 올해 안에 유류 정유 생산능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시아 spot 정제마진 역사적 고점 돌파 전망 - 3월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이 예상되며,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이마트 (139480)	249,000 (-12.6)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5.3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삼성전기, 한국타이어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필수소비재	408	IT가전	-757
	IT하드웨어	311	반도체	-429
	건강관리	292	건설,건축관련	-335
	소프트웨어	112	은행	-163
	호텔,레저서비스	77	화학	-148
종목	KODEX 레버리지	414	LG전자	-954
	셀트리온	325	현대건설	-336
	삼성SDI	176	삼성전자	-259
	LG이노텍	162	SK하이닉스	-231
	현대백화점	159	삼성물산	-167
	현대로템	112	삼성생명	-133
	CJ제일제당	97	삼성엔지니어링	-117
	일진머티리얼즈	92	현대건설기계	-115
	오뚜기	85	신세계	-85
	호텔신라	74	신한지주	-75
	반도체	671	건설,건축관련	-362
	IT하드웨어	637	증권	-99
	건강관리	455	유틸리티	-99
	화장품,의류,완구	241	조선	-97
	기계	238	에너지	-83
삼성전자	1,168	SK하이닉스	-542	
삼성전기	538	삼성엔지니어링	-286	
셀트리온	348	한국전력	-122	
현대로템	313	SK이노베이션	-112	
삼화콘덴서	186	현대엘리베이	-89	
LG전자	150	현대건설	-76	
엔씨소프트	141	현대백화점	-68	
LG생활건강	124	필룩스	-60	
신세계	106	NAVER	-55	
호텔신라	95	현대중공업	-51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140	소프트웨어	-80
	IT하드웨어	133	조선	-37
	미디어,교육	84	호텔,레저서비스	-33
	디스플레이	55	필수소비재	-29
	기계	33	자동차	-13
종목	셀트리온헬스케어	97	펄어비스	-54
	피엔티	47	에이치엘비	-31
	에스엠	41	더블유게임즈	-28
	아모텍	25	현대사료	-27
	제넥신	25	테스	-16
	비에이치	23	민앤지	-16
	코오롱티슈진	21	네오위즈	-15
	매일유업	21	중앙백신	-15
	엘앤에프	19	파라다이스	-14
	대한광통신	19	이녹스첨단소재	-14
	건강관리	398	소프트웨어	-93
	IT하드웨어	146	호텔,레저서비스	-66
	반도체	96	화장품,의류,완구	-36
	디스플레이	46	기계	-34
	필수소비재	40	조선	-29
바이로메드	100	셀트리온제약	-111	
셀트리온헬스케어	94	펄어비스	-101	
메디톡스	90	대아티아이	-38	
이지바이오	51	좋은사람들	-34	
삼천당제약	51	모두투어	-31	
케이엠더블유	47	신라젠	-27	
오스코텍	31	포스코컴텍	-23	
피엔티	30	네오위즈	-20	
미래컴퍼니	24	아난티	-19	
스튜디오드래곤	23	에이치엘비	-18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29,311	51,300	1.18	0.67
SK하이닉스	66,539	91,400	-2.14	19.48
셀트리온	34,296	273,500	3.01	23.70
현대차	30,839	140,000	0.72	-10.26
삼성바이오로직스	29,874	451,500	3.79	21.70
POSCO	29,600	339,500	0.00	2.11
LG화학	23,790	337,000	-0.44	-16.79
삼성물산	23,711	125,000	-0.40	-0.79
NAVER	22,415	680,000	1.64	-21.84
현대모비스	22,048	226,500	3.90	-13.88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4,276	101,600	1.80	-6.5
신라젠	5,690	82,000	1.86	-12.3
에이치엘비	4,914	134,500	-2.54	248.0
메디톡스	4,373	773,000	2.57	59.4
나노스	4,246	8,650	1.17	272.0
바이로메드	4,204	263,500	-0.57	61.4
CJ E&M	3,498	90,300	-0.33	-7.6
셀트리온제약	3,115	91,500	-1.82	49.5
스튜디오드래곤	3,095	110,400	2.51	69.9
펄어비스	2,703	213,400	-4.56	-13.8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08.77	-0.23	-0.91	-0.05	-0.83	
	MSCI 선진국	2,092.92	-0.36	-0.85	0.44	-0.50	
	MSCI 신흥국	1,120.71	0.72	-1.40	-3.59	-3.26	
DM	S&P500	2,705.27	-0.69	-1.03	1.90	1.18	
	Dow Jones	24,415.84	-1.02	-1.89	1.31	-1.23	
	Nasdaq	7,442.12	-0.27	0.22	4.37	7.80	
	Russell 2000	1,633.61	-0.87	0.37	5.37	6.39	
	영국 FTSE 100	7,740.63	0.81	0.31	2.93	0.69	
	프랑스 CAC	5,467.42	1.28	-1.36	-0.96	2.91	
	독일 DAX 30	12,732.80	1.01	-1.59	0.96	-1.43	
	스페인 IBEX	9,638.50	1.83	-1.91	-3.43	-4.04	
	일본 니케이	22,171.35	-0.14	-1.24	-1.50	-2.61	
	홍콩 항셱	30,492.91	0.08	-0.31	-1.02	1.92	
	EM	코스피	2,438.96	0.66	-0.89	-3.04	-1.16
		코스닥	883.22	0.40	1.71	0.83	10.62
		중국 상해종합	3,075.14	-0.66	-2.11	-0.23	-7.02
홍콩 H지수		12,020.09	0.35	-0.23	-2.52	2.65	
인도 Sensex		35,227.26	-0.27	0.87	0.19	3.44	
베트남 VN		992.87	2.23	3.01	-5.46	0.88	
인도네시아 JCI		5,983.59	-0.46	3.31	-0.18	-5.85	
러시아 RTS		1,168.77	0.50	-0.10	1.28	1.24	
브라질 Bovespa		76,753.62	0.90	-5.09	-10.87	0.46	
멕시코 Mexbol		44,662.55	-0.12	-1.70	-7.64	-9.51	
글로벌 업종	에너지	183.94	0.41	1.80	2.03	5.43	
	소재	212.59	0.29	-0.76	0.47	-1.49	
	산업재	282.95	-0.02	-1.46	-0.07	-3.18	
	경기소비재	260.16	0.03	-0.74	-0.23	-1.92	
	필수소비재	294.98	-0.03	-0.44	0.93	-1.53	
	헬스케어	552.00	-0.05	-1.69	1.02	4.51	
	금융	175.42	0.22	-1.62	-2.74	-3.63	
	IT	396.73	0.18	-0.58	4.30	9.17	
	통신서비스	164.92	0.08	-1.27	-4.75	-6.92	
	유틸리티	167.02	0.04	-0.30	-2.33	-2.14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3.92	-0.07	0.15	1.59	1.95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2.02	0.08	-0.12	1.94	2.47
미주	브라질	3.72	0.10	-2.55	-5.84	-11.05
	멕시코	19.90	0.04	-1.81	-4.79	-1.23
아시아	한국	1,074.95	0.21	0.28	-0.51	-0.70
	일본	109.30	-0.44	0.10	0.51	3.10
	중국	6.41	-0.06	-0.35	-1.28	1.44
	대만	1.33	0.31	0.05	-0.71	3.47
	인도	67.14	0.40	0.93	-0.72	-4.87
유럽	유로존	1.17	0.12	0.48	-2.38	-2.48
	영국	1.33	0.11	0.03	-2.21	-1.48
	러시아	62.14	0.43	0.12	2.40	-7.17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88	2.36	-4.91	-8.22	47.68
	캐나다	2.24	-2.20	-16.80	-6.30	19.90
	브라질(USD)	11.46	3.80	76.90	162.10	120.00
	멕시코	7.81	-0.10	15.40	31.50	15.10
	유럽	독일	0.40	5.50	-1.00	-16.30
	영국	1.27	3.90	-5.20	-13.60	7.90
	프랑스	0.70	3.50	-0.80	-8.30	-8.20
	이탈리아	2.57	-22.10	11.20	78.80	55.70
	러시아	4.76	2.50	0.10	-2.20	88.80
아시아	한국	2.70	0.00	-2.50	-2.20	22.80
	일본	0.05	0.80	0.70	0.50	0.00
	중국	3.65	0.70	0.90	-0.30	-25.70
	호주	2.70	3.20	-8.40	-5.40	7.20
	인도	7.86	2.30	6.10	8.80	52.9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81.43	-0.47	-2.05	2.23	8.81
	LMEX 지수	3,350.60	0.30	0.22	2.30	-2.00
	CRB 지수	446.27	0.09	0.34	0.26	3.22
에너지	원유(WTI)	66.87	-0.25	-5.43	-0.57	10.68
	원유(Brent)	77.57	0.01	1.48	6.07	16.00
	천연가스	2.95	0.07	0.48	5.42	0.03
금속	금	1,299.50	-0.05	-0.38	-0.56	-0.75
	은	16.47	0.07	-0.91	2.69	-3.94
	구리	6,852.00	0.18	-0.22	0.66	-5.45
	아연	3,100.00	-0.96	2.34	-0.86	-6.60
	알루미늄	2,292.00	0.97	0.97	1.64	1.06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311.99	0.40	-0.36	-0.40	10.58
	옥수수	395.75	0.44	-2.10	-2.46	7.76
	밀	521.75	-0.86	-1.60	-1.42	15.11
	대두	1,024.25	0.56	-1.11	-2.75	4.17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4.71	-4.67	17.40	-5.04	33.24
유럽	VSTOXX	15.70	-11.09	-2.03	14.45	16.18
한국	VKOSPI	13.18	-9.42	5.44	-3.02	9.29

##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8	29	30	31	1
	美>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 (128.0, 128.0, 125.6) 유럽> 4월 M3 통화공급 YoY (3.9%, 3.9%, 3.7%)	美> <b>연준 베이지북 공개</b>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9%, n/a, -2.6%) 4월 도매재고 MoM (0.0%, 0.5%, 0.2%) 1Q GDP 연간화 QoQ (2.2%, 2.3%, 2.3%) 유럽> 5월 소비자지대지수 (0.2, 0.2, 0.2)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21, 228, 234) 4월 개인소득 (0.3%, 0.3%, 0.2%) 中> 5월 제조업 PMI (51.9, 51.4, 51.4)	韓> 1Q GDP YoY (2.8%, 2.8%, 2.8%) 5월 CPI YoY (1.5%, 1.7%, 1.6%) 5월 수출 YoY (13.5%, 10.5%, -1.5%) 美> 5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90, 164) 中> 5월 차이신 PMI 제조업 (51.1, 51.2, 51.1) 유럽> 스페인 총리 불신임 투표 5월 마킷 제조업 PMI (n/a, 55.5, 55.5)
4	5	6	7	8
美> 4월 제조업수주 (n/a, -0.4%, 1.6%) 4월 내구재주문 (n/a, n/a, -1.7%)		韓> 휴장(현충일)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9%) 4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51.3, -49.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21) 유럽> 1Q GDP SA YoY (n/a, n/a, 2.5%)	美> 4월 도매재고 MoM (n/a, n/a, 0.0%) 中> 5월 PPI YoY(9월) (n/a, n/a, 3.4%) 5월 CPI YoY(9월) (n/a, n/a, 1.8%) 日> 4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3122.3) 1Q GDP SA YoY (n/a, n/a, 0.5%)
11	12	13	14	15
日> 4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3.9%)	美> <b>복미 정상회담</b> 5월 CPI MoM (n/a, n/a, 0.2%) 유럽> 6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2.4) 日> 5월 PPI YoY (n/a, n/a, 2.0%) 4월 3차산업 지수 MoM (n/a, n/a, -0.3%)	韓> 휴장(현충일) 美> <b>FOMC 금리결정</b> (n/a, 2.00%, 1.75%)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4월 PPI 최종수요 MoM (n/a, n/a, 0.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5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n/a, 0.3%)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n/a, -0.4%) 中> 5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7.0%) 日> 5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2.5%)	美> 5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7%)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98.0) 유럽> 5월 CPI YoY (n/a, n/a, 1.2%) 日> BOJ 통화정책회의 (n/a, n/a, -0.1%)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